

시대변화에 따른 교당 교화구조개선 연구 :

열린교당 열린교화의 개척

이정일, 김수련, 국성천*

(원불교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 정책연구소)

목 차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 교당 구성의 이론적 고찰
 - 1. 교법에서 본 교당의 정의
 - 2. 교당의 역할과 공간의 구성
- III. 교당 구성 변화의 현실과 진단
 - 1. 교화 활동의 현실
 - 2. 교역자 역할의 현실
- IV. 제언 및 나오는 말

참고문헌

* 이정일(ha7409@won.or.kr)

**김수련(dittowon@won.or.kr)

***국성천(taiji68@outlook.kr)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의·식·주를 꼽는다. 몸을 보호할 옷, 살아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은 생명의 연장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와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도시 생활의 삭막함을 탈피하기 위해, 혹은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혹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여, 무너져 가는 집을 새롭게 일으키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집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만큼 공간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취향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그 공간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가는 어떨까? 교회·사찰·성당·교당 등 종교의식을 통해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공간을 마련한 경우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식과,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 느끼는 감흥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종교가의 집’이라는 공간은 그 종교를 신앙하는 신도뿐만 아니라, 교회·사찰·성당·교당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회·사찰·성당·교당을 방문함으로써 영성을 맑히고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곳의 주인은 방문하는 모두요, 그 공간에 다녀간 누구라도 정신개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참 주인이 되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2021년 종교학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종교의 특징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우리 사회는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문들이 발표됨과 동시에 성찰과 변화의 핵심으로 종교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종교인구의 감소와 ‘제도적 종교는 필요 없다.’ 여기는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까지 종교계가 모두 촉각을 세우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야 할 ‘종교적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중시하는 종교에는 입문하지 않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종교 본질의 뜻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종교라는 집’이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적 기능의 담당을 맡아줘야 한다.

원불교의 교화는 원불교의 교법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범부가 변하여 성현이 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갖게 하며, 악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 또는 원불교 교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도록 이끄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화자와 시대를 달리하는 대상들로 하여금 교당의 개념, 기능, 법회의 형태 등이 교화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전락하였고 본질적 교화 살림의 내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적 기능의 담당을 맡을 교당의 구조와 교화는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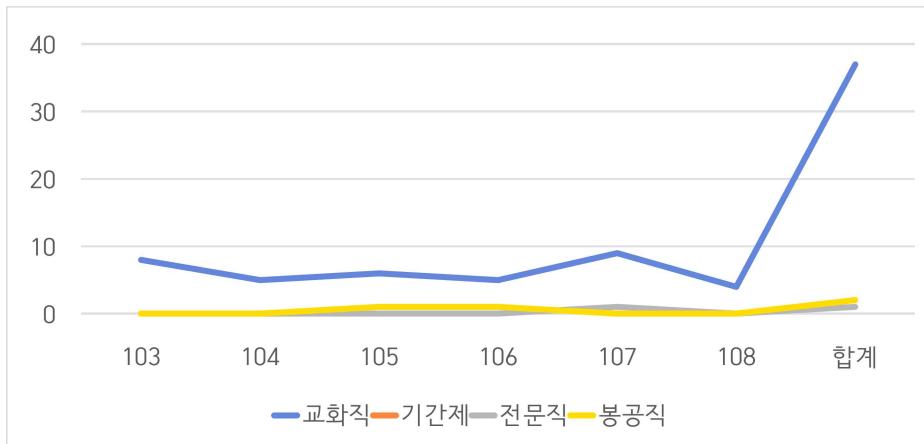
1. 먼저 교화의 주체에 대한 살핌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령층의 구도가 변화되었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포함한 지역인구 감소 등 사회의 문제가 교단의 미래에 대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여성 교역자의 출가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최근 10년간(원기98~108년) 여성 전무출신 지원 승인 비율



<그림2> 최근 6년간 여성 전무출신 배출 비율



원불교는 109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 교역자가 주체가 되어 교당의 교회를 해왔고, 그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여성성이 가진 장점으로 순교, 상담, 의식의 진행 등 인간적인 만남에 필요한 부분들이 교화 무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 교역자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다.

원기108년 기준 특급지, 1급지, 2급지 교당에 근무하는 교무 중 여성 70%, 남성 30% 분포로, 4,5,6급지 교당에 근무하는 교무 중 여성 50%, 남성 50%의 분포를 이룬다. 10년 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특급지와 1,2급지의 남성교역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4,5,6급지의 남성교역자 비율은 70~80% 이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화 주체가 여성 교역자에서 남성 교역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은 교당에서 근무하는 남성 교역자가 늘어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다양한 부분을 시사한다. 전무출신 배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교단 전체적인 배경에 더 하여, 여성 전무출신 비율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량적으로 많은 교화 인력을 배출하기 어려운 점과 그동안 여성 교역자 위주의 교화 환경에 포진되어 있던 여성 교역자 자체와 그 교화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교도들의 시각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남성 교역자를 바라보는 정서적인 갭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교역자의 연령대별 시각에서 바라봤

을 때 각기 다른 가치 추구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결혼한 남자 교무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두었을 때 학비를 비롯한 비용이 제일 많이 지출되는 시기가 된다. 교화를 위해 남성 교역자를 교당에 인사배치 하였을 때 가정 상황을 배려한 생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작 교화에 필요한 인력이 채워져도 교당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교당 근무를 우선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4대1회의 시작인 지금부터라도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법회 출석률이 성장의 지표가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성장, 교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참여들이 내면의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에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물론 종교인구 조사를 비롯해 교단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할 때 기계적으로 산출하기 쉬운 부분인 통계가 법회 출석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당에서 이뤄지는 훈련과 의식을 통해 개인의 내면 성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 즉 질적 성장의 지표도 마련되어야 한다.

2. 공간의 쓰임에 대한 살핌

실질적인 교당 공간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의식 또는 법회를 진행하는 장소 둘째, 교도들의 모임 장소 셋째, 교무의 생활공간이 있다. 재가출가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을 위한 공간, 구성원들간의 소통의 공간을 비롯한 출가교도의 생활공간까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공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교당이라는 공간이 원불교 의식을 행하는 대각전 만으로의 존재에서 벗어나 교도가 아닌 지역사회로 교당을 개방하여 공간 자체가 사회 봉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공간의 개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법회를 통해 경험하는 원불교에서 실질적인 원불교적 삶이 되도록 그 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에 지금보다 더욱 정기훈련을 내실화하고, 교당은 상시훈련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단 4대1회의 설계에 따른 정책의 입안과 실제적이고 실천가능한 활동을 통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연계고리가 더욱 탄탄해져 교법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도든 교도가 아니든 교당에 방문했을 때, 대상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도록 평상시 삶을 점검하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훈련 형태의 법회가 되도록 마음을 열고, 어떤 누구라도 접근이 용이한 교당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의 한정을 지우지 않아야 진정한 내적·외적의 OPEN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당이라는 원불교의 집에 대한 공간적인 한정을 지우지 않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교당이 되어야 진정한 종교의 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당이 그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교역자가 있는 그곳이 교당이 되며, 교역자가 만나는 그 사람이 교도가 되는 그때가 진정한 열린교화 열린교당의 개척이 실현되는 것 아닐까.

대종사님 당대의 교회는 이미 온 인류·전 세계에 은혜를 전달할 포부와 경륜이 담겨있었다. 대종사님의 원대한 정신을 회복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크게 전환하려는 뜻을 담아 물리적·시공간을 넘어선 열린 교당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서두에서 집은 생명의 연장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와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소득수준과 행복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다른 요소들이 크게 기여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문제점으로 살폈던 내용들은 ‘종교라는 집’이 본질적

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기여하지 못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시대를 함께하는 주인공들의 의식 흐름과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함께하며 개선되는 미래 교당의 모습이길 바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 교당의 구조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미래 교회를 위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어 교당 공간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법에서 본 교당의 정의와 교회에서 본 교당의 역할과 공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시대로 본 교당 공간 구성의 변화와 미래 교당 공간에서의 교역자의 삶과 생활에 대해 전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교단 제4대 1회 설계에 바탕한 실천 과제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열린 교당 열린 교회의 개척이 시작되고 교법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II. 교당 공간 구성의 이론적 고찰

1. 교법에서 본 교당의 정의

원불교 교당은 대중교화大衆教化의 장소場所로써 교도教徒와 인구人口의 집중지集中地에 교당教堂을 설치設置하고 교도教徒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응應하도록¹⁾ 하는 공간이다. 또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수행을 지도하며, 교화·훈련·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²⁾ 되어야 한다. 교당이라는 공간은 인구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여야 하고, 교도뿐만 아니라 대중 교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교헌』과 『규정』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당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당 역사상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실’은 원기 3년(1918) 10월에 착공되어 그해 12월에 완성되었다. 구간도실은 낮에는 방언공사의 현장사무소로써, 밤에는 소태산 대종사와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리를 연마하며 기도하고, 방언 후에는 혈인 기도의 본부가 되기도 하였으며, 삼순일로 모이는 정례법회가 열리는 교당이었다. 교당은 교단 초기의 원불교가 지향하는 삶인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의 표어를 몸소 실천하고, 대종사님과 9인 선진들이 생활과 공부가 둘 아닌 삶을 살아내는 곳이었으며 정례법회의 모델이 탄생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교당 역할을 했던 구간도실 이후 길이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착하기에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 주는 것이 시대의 급무³⁾임을 파악하고, 교당 위치로 적당한 곳으로 이축을 발론하여 범현동 기슭에 새터를 정하게 된다. 이것이 목조 초가 10간(間) 1동(棟)과 8간(間) 2동(棟)으로 된 영산원(靈山院)의 첫 건설이었다.

이 대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사람이 내왕하기 편리한 곳,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한

1) 『원불교 교헌』, 제3절 교화 제10조 교당(教堂) 본교本教는 대중교화大衆教化의 장소場所로써 교도教徒와 인구人口의 집중지集中地에 교당church을 설치設置하고 교도教徒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응應하도록 한다.

2) 『교당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교당의 정의) 교당은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 수행을 지도하며, 교화, 훈련, 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된다.

3) 『교사』,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5장 교법(教法)의 초안(草案) 5. 회상 공개의 준비

교당이어야 교화 활동이 가능한 교당이 될 수 있음을 그때의 주인공들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기 9년 대종사께서 김제를 거쳐 내장사에 이르러 회상 공개에 관한 취지 규약의 작성 인쇄와 제반 준비를 마친 후 취지 실현을 위해 사찰에 머물려 하였으나, 불발된 후 서울로 올라가시어 임시 출장소를 정하시고 여러 인연들을 얻게 되셨으며, 익산 총부가 건설됨과 동시에 영산원은 영광 지부라 이름하고, 봉래산 석두암은 부안 수양소로 개칭되었다. 원기 11년에는 경성 출장소, 원기 12년에는 신흥 출장소가 설치된 것을 보아 총부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의 작은 총부를 출장소라 칭하였고, 출장소에서 법회를 개최한 곳들에 교당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익산총부 건설 당시 교당의 본질은 ‘신도로 하여금 1개월 내에 복잡한 진세(塵世)의 육적생활(肉的生活)에서 기분(幾分)이라도 정신상 혜복로(慧福路)를 개척할 영적 생활(靈的生活)을 하게 하는⁴⁾ 까닭’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 내용은 꼭 교당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예회의 중요성을 밝혀주신 말씀에서 예회를 보는 공간에 대한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 해인 시창 18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년도에 법회를 개최한 곳은 7개소로 총부, 영광 지부, 영광신흥분회, 부산출장소, 원평 출장소, 진안출장소, 진안 좌포리이며, 이곳을 교당이라 칭하였다. 실질적으로 7개소의 명칭을 교당으로 칭하지는 않았으나, 법회를 개최한 곳과 출장소이나 교무가 파견되어 법회를 운영한 곳을 교당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당 이전 교당의 역할을 했던 곳은 총부 내의 교무부가 있었으며, 교당이라는 표현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 당년도중법회개최교당當年度中法会開催教堂 (7개소個所)

- ① 총부
- ② 영광지부
- ③ 영광신흥분회
- ④ 부산출장소(하단)
- ⑤ 원평 출장소(김제출장소)
- ⑥ 진안출장소
- ⑦ 진안좌포리(좌포출장분소)

또 하나 교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교당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포괄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있다. 바로 ‘도량(道場)’이다. 도량은 원불교의 교법을 펼치고 마음을 닦는 장소, 곧 법도량⁵⁾이라 할 수 있다. 소태산대종사가 탄생하고 대각을 이룬 전남 영광을 비롯하여 중앙총부와 전국 각 교당과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불교 교단 초기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을 표방하고 쳐쳐불상 사사불공의 교법을 펼치는 공간을 제한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 어디나 다 도량이며, 세속과 도량을 구별하지 않으며, 교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넓은 의미의 교당이라 할 수 있겠다.

『정전』에서는 지난 일을 문답하는 도량이며, 감각된 일을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을 얻고, 의심의 해오를 얻고, 입선 훈련하며, 예회를 보며, 정신적 소득을 얻는 도량으로, 『대종경』에서 교당은 인간 개조하는 도량이며 자리이타의 도량이며 심전계발하는 대농의 봇자리판이라 언급하였다.

이같이 교당 공간의 역할은 신앙인들의 모임 체, 정기적인 모임의 도량, 신자들의 정신상의 혜복로를 개척하는 도량, 신도들로 하여금 진리적(영적)생활을 하게 하는 도량이며, 교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교화가 이뤄진다는 개념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월보」, 제40호, 「시창 17년(임신壬申)9월 불법연구회 총부, 예회를 존중히 하라」

5) 『원불교대사전』

제6장 교구와 교당(教區와 教堂)

第82條(教區) ①本教는 地方 및 國外教政의 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教區를 둔다.

②教區의 編制 및 自治에 關한 것은 教規로 定한다.

第83條(教堂) ①本教는 教化의 場所로 教堂과 其他 教化場所를 둔다.

②教堂과 其他 教化場所에 關한 것은 教規로 定한다.

『교헌』의 제6장 교구와 교당 제82조(교구)에서는 ①본교는 지방 및 국외 교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를 둔다. ②교구의 편제 및 자치에 관한 것은 교구로 정한다. 고 하였으며, 제83조(교당)에서는 ① 본교는 교화의 장소로 교당과 기타 교화 장소를 둔다. ②교당과 기타 교화 장소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앞에 언급한 내용들로만 유추해 보아도 교당은 물리적 공간만을 한정 지어 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의 장소 또한 교당만으로 한정 짓지도 않았으며, 그 개념을 초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은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 『예전』,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당’에 대한 언급이 있는 법문을 분류하고 의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전환하기 전 ‘교당’의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1> 전환된 의미 이전의 ‘교당’ 개념

전환된 의미 이전의 ‘교당’ 개념

- *교당에 오고보면 그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 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회 날에는 모든 일을 처리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밖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라.

정전

- *이 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수도하는 쳐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이 쟁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예회 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 예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회 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어늘, 예회 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별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 없는 것,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재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서울 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의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 *마령교당에 가시니 오송암이 와서 뵈옵고 말하되, *서울교당에서 이 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 까지 가자 하시거늘, *설법을 마치면 대중은 그 담례로 많은 폐백을 바칠 것이요, 법사는 그것을 그 교당에 내주고 또 다른 교당으로 가서 그와 같은 우대를 받게 되리라. *동리동리에 교당과 공회당을 세워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정례로 법회를 보게 될 것이며, *수계교당에서 새 예전의 편찬을 마치시고 *조량교당 법당에 써 붙이시기를 [사온 상생지(四恩相生地) 삼보정위소(三寶定位所)]라 하시고, 시국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그간은 각 기관과 교당 육성에 주로 힘써 온 관계로 총부로서 직접 할 거교적인 사업들을 거의 미루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각 기관 교당이 일치하여 거교적 사업에 힘을 모으며 총부의 유지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라.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 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교당 봉불식에서 설법하시기를–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안하여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니, *지방 교당 하나 생기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 지방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당이 서는 것이며, 교당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른 물질의 보시보다 공이 훨씬 더하나니, *도학의 기관으로 교당을 세우고 도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이 선인이 되게 한다면 그 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정산종사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도 교당에 일원상을 봉안하듯 각자의 육신 법당에 마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라. *큰 교단이라도 화합이 무너지면 그 교단은 해체되고 말 것이니 지은보은 겸양의 도로 재가·출가와 교당·기관이 대동 화합의 기틀을 확립할 것 *한 교당 한 교도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교단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어야 만대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으리라.
대산종사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의 실시 – 선원과 학원과 훈련원은 물론 각 교당과 기관에서 이 법으로 철저히 훈련을 하도록 할 것이라. *교당의 네 가지 관리법⁶⁾ *꼴만 구 암자가 들어선다 힘은 수많은 가정과 기관과 교당에 일원상 부처님을 봉안함이라.
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택이나 교당에서 명명식을 거행하되 *자택이나 교당에서 출생 7주 기원식을 거행하되 *성년식 – 적당한 날자에 교당이나 자택에서 거행하되, *혼인 소개소는 교당 또는 일반 공공 기관에 병설하여 이용함이 좋을 것 *결혼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 *회갑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 *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초재 및 칠재 ~ *재(齋)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재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의하여 할 것이요. *열반 기념제 – 기념제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제사에 관한 처리 – 규정에 의한 헌공 자금을 교당에 바치고, 교당에서는 매년 그 이율로써 헌공하며, 교당 주최로 기념제를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교례는 교단을 중심으로 교당에서 행사하는 의례를 이름이니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안하여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자는 것이니라.

*법신불 조성 및 불단 – 초창기의 교당에서 따로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는 혹 임시로 통용할 수도 있으나 항상 정결과 정숙에 주의 할 것이요

*수시법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설법의 회합과 교당 의례를 갖추어야 할 교단의 모든 집회를 통칭하는 것이니,

*교당 의례는 입정·심고니, 모든 법회의 순서에 반드시 편입 시행할 것이며,

*지방 교당이나, 개인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큰 일의 시와 종에는 그 지방 대각전 또는 가정 불단에서 봉고식을 행할 수 있나니,

*수시 경축은 교당의 낙성, 사업 기관의 창설 확장, 교단적 특별 사업의 완성,

*교당 낙성 경축식은, 봉불식과 합동 거행함이 통례이니, ~

*영모전에는~ 각 교당에도 그 영인본(影印本)을 보관하여 추모에 자(資)할 것이요

*법종은 도량의 일상 생활과 법회의 시종을 알리는 도구니, 각 교당에 이를 비치하되, 범종을 원칙으로 할 것이요

*첫 교당 건축과 공부 사업 병행

원기 3년(1918·戊午) 10월, 옥녀봉(玉女峰) 아래 도실(道室) 건축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니, 이것이 곧 새 회상의 첫 교당인 옥녀봉 구간 도실이다. ~ 비로소 도실을 건축한 것인 바 ~ 첫 교당을 준공한 후~

*옥녀봉 도실은 너무 비좁아 대중을 수용하기가 심히 불편하고, 또는 기지가 비습(卑濕)하여 영원한 교당 위치로는 적당치 아니하므로, 이에 교당의 이축을 발론하시 어, 드디어 범현동 기슭에 새 터를 정하고 목조 초가 10간(間) 1동(棟)과 8간(間) 2동(棟)의 건축을 10월에 마치니, 이것이 곧 영산원(靈山院)의 첫 건설이었다.

*교당들의 설치 상황은, 원기 9년(1924·甲子)에 익산 총부가 건설됨으로써, 영산원은 영광 지부라 이름하여

*원기 11년(1926·丙寅) 7월에는 서울 이 동진화가 창신동에 목조 초가 2동을 희사하고, 이 공주 등(별록8)이 유지를 부담하며, 김 삼매화가 치산을 담당함으로써, 경성 출장소가 발족

*원기 12년(1927·丁卯) 3월에는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신흥(靈光郡畝良面新川里新興)에 신흥 출장소가 설치되니,

교사 *의례제도의 개혁과 4기념례 – ②명절 기념은 재래의 수 많은 명절들을 한 날로 교당에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④환세 기념은 새 해를 교당에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인 바,

*4기념 예법 또한 모든 인심이 아직도 번문 육례(繁文縟禮)와 미신 풍속에 깊이 써려 있는 때,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새 세상 건설 대업에 다 같이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일원상 봉안과 교무의 훈련 – 원기 20년(1935·乙亥) 4월에 익산 총부 대각전이 준공되고, 그 정면 불단에 심불 일원상(心佛一圓相)이 정식으로 봉안되니, 이는 새 회상이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갖춘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었다. ~ 이어서 이듬해(원기 21·1936) 9월에 초량 교당, 12월에 영산 대각전과 신흥 교당, 그 이듬해(원기 22·1937) 3월에 용신 교당과 원평 교당을 신축하면서 다 일제히 불단을 마련하고 일원상을 봉안하였으며, 뒤이어, 모든 교당도 일제히 불단을 신설하여 일원상을 봉안하게 하시는 동시에, 혹은 설법 혹은 법문으로 일원의 종지를 더욱 천명해 오시다가, 원기 23년(1938·戊寅) 11월 동선에는 심불 일원상 봉안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선포~

*전재 동포 구호와 전국 사업 – 교무 강습회에 한글 학회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 전국 교당에서 일제히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한 바

*정관평 재방언과 성지사업 – 각지 교당 봉공대의 봉공 작업과, 작업에 참가 못하

는 교도들의 노임 대전(勞賃代錢)으로 기초 작업을 마친 후,

*교화 삼대목표 추진과 법위 향상운동 – 교화 3대 목표는, 연원 달기·교화단 불리기·연원교당 만들기인 바, ~ 연원 교당 만들기란, 각 교당에서 연원 교당을 이루하여, 나라나 세계에 일원 대도가 편만하도록, 우선 한 교당에서 한 교당 이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2. 교당의 역할과 공간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불교 교당이라는 공간은 인구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여야 하고, 교도뿐만 아니라 대중 교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교현』과 『규정』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당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리적 공간에 드나드는 대상을 위한 응함과 대중 교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 『예전』, 『교사』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교당’에 대한 의미를 축약하고, 전환된 의미의 ‘교당’ 개념으로 다시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2>에 담았다. 이 연구는 지오지(Giorgi)⁷⁾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개괄적 파악을 거쳐 전체의 내용을 이해한 후 의미 단위를 구별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반화단 단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2> 전환된 의미의 ‘교당’ 개념

법문에서 강조된 ‘교당’	전환된 의미의 ‘교당’
*문답, 감정, 해오의 공간	
*전문공부하는 선원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이 봉안되어 있는 공간
*예회 개최의 공간	
*소득유무 반조의 공간	
*실행활에 활용할 소득을 얻어가는 공간	*신앙과 수행이 있는 공간
*이 회상 최초의 교당	
*낮에는 노동, 밤에는 설법을 듣는 공간	*문답, 감정, 해오의 공간

6)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26장, 첫째는 가옥 관리라, 교당에 살면서 내 몸 돌보듯 가옥 관리에 정성을 다해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것이요, 둘째는 가사 관리라, 실림을 잘못하면 밖에서 볼 때 겉은 있으나 속은 없다고 할 것이요, 셋째는 인재관리라, 위에서는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고 아랫사람은 위사람을 스승으로 잘 받들어야 할 것이요, 넷째는 자기 관리라, 진리를 닮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나니, 이상 네 가지가 소홀한가 철저한가를 살펴서 일생을 계획하고 영생을 설계해야 하느니라.

7) Giorgi, 1970, New York, 현상학적 분석 제시, 연구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①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언어 그대로의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단위 규명, ②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 규명, ③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 규명, ④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 ⑤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

*사업과 공부의 병진으로 지혜의 길이 점차 개척되는 공간	
*재래에 가졌던 허영의 마음이 차차 진실한 마음으로 전환되는 공간	
*미신의 생각이 차차 올바른 믿음으로 전환되는 공간	
*타력에만 의존하던 생각이 차차 자력을 찾게되는 공간	
*공부의 정도가 진보되는 공간	
*수행 방법 지도하는 공간	
*설교가 있는 공간 - 성현의 말씀(가르침, 교법)이 탄생한 공간	
*마음 병 치료병원	*정기훈련 11과목,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공간
*문답감정의 공간 - 도량의 관리와 마음의 살핌	
*교서편찬의 공간-예전	
*공부사업 촉진기관	
*일원상 봉안의 공간	*공부와 사업 병진의 공간
*교법으로 훈련을 철저히 하는 공간	
*마음 관리하듯 교당도 관리가 필요한 공간	*습관과 업력을 녹여내고 교법적으로 진화되는 공간
*통과의례(기례) 의식을 주최 및 진행하는 공간 - 명명식, 출생 칠주 기원식, 성년식, 약혼식, 결혼식, 회갑식, 발인식, 재와 제사,	
*교례, 교당 의례와 교단의 모든 집회를 개최하는 공간 - 봉고식, 교당의 낙성, 4축2재	*정진과 적공으로 공부의 정도가 진보되는 공간
*영모전 - 영인본(影印本)을 보관하여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법종이 마련되어 도량의 일상 생활과 법회의 시종을 알리는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	*마음공부 하는 공간
*교통이 편리하고,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출장소, 교무부, 도량의 의미 포함된 곳	*가례와 교례 의식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공간
*문맹 퇴치 운동 전개 공간	
*봉공대의 봉공 작업과 노임대전의 기초 작업 공간	*법회가 열리는 공간
*연원교당을 불려 나가는 공간 - 나라나 세계에 일원 대도가 편만하도록 한 교당에서 한 교당 이상을 만들어 내는 곳	*불보살 배출의 도량
*온갖 정성이 한데 뭉친 공간	
*세상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어주는 공간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재미있게 내왕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곳	
*총부를 잊지 않고 항상 존중히 알아 연원계통을 잘 대고 대의 명분을 세워주는 공간	*대 사회적으로 협력과 역할을 하는 공간
*사종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공간, 사업권장하여 작복의 길을 열어 주는 공간	
*훈련을 통해 적공 하는 공간-훈련법으로 힘을 얻는 공간	*세상을 위해 개방하고 여러 대상의 교회에 노력하는 공간
*정기훈련 십일과목과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목을 공부하는 공간	
*마음을 묵히지 않고 계속 적공하는 공간	
*불보살 배출 도량	
*교도와 교당을 많이 늘리는 공간 - 후손을 많이 늘리는 것과 같다.	
*교당을 개방하여 학원강습회를 개최하고 무산아동 급 농촌 부녀자의 교화에 노력하는 공간	

법문에서 강조된 ‘교당’의 의미를 전환하여 요약하면, 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이 봉안되어 있는 공간, ② 신앙과 수행이 있는 공간, ③ 문답, 감정, 해오의 공간, ④ 정기훈련 11과목,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공간, ⑤ 공부와 사업 병진의 공간, ⑥ 습관과 업력을 녹여내고 교법적으로 진화되는 공간, ⑦ 정진과 적공으로 공부의 정도가 진보되는 공간, ⑧ 마음공부 하는 공간,

⑨ 가례와 교례 의식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공간, ⑩ 법회가 열리는 공간, ⑪ 불보살 배출의 도량, ⑫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 ⑬ 대 사회적으로 협력과 역할을 하는 공간, ⑭ 세상을 위해 개방하고 여러 대상의 교화에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사님 당대 교당에서는 영육쌍전의 의미가 살아나는 도량의 개념이었다. 교단이 형태를 갖추어 가고 조직이 완성 되어가는 과정에서 교당은 예회를 보는 곳, 문답·감정의 도량, 훈련이 이뤄지는 곳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현 시대에도 이 장점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점이 극명하게 살아날 때 교당이 제 역할을 찾는 것이 될 것이며 제 역할에 따른 공간의 구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훈련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는 도량, 어떤 누구라도 문답·감정을 통해 해오를 얻어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얻어가는 열린 교당으로서의 기능이 더해져야겠다. 진정한 열린 교당으로의 역할을 하려면 ‘사종의무’를 잘 이행하는 교도의 역할이 잘 살아나되 ‘법회출석’을 뛰어넘어, 깨달은 불보살이 많이 배출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 마련된 제한적인 교당을 뛰어넘어 교역자가 가는 곳이 교당이 되고, 교도가 있고, 출·재가 교도가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교화로 지칭 되어야 한다.

최근 원불교 익산성지 100주년을 맞아 총부를 개방하여 다양한 설치를 비롯·참여의장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4월 기준 1만 7천 여명이 방문하였다(원불교신문, 109(2024.05.08. 수요일)고 하니, 코로나 시국의 영향으로 인해 조심스러웠던 발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상주선원에서 진행하는 “익산성지 생활훈련”의 경우 익산 총부 건설 100주년을 맞아 소태산 대종사가 법을 폐고, 훈련하고, 열반상을 나투신 익산성지에서 선진님을 모시고 생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총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 활용하여 원음각에서의 새벽 타종,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들과 함께 심고 모시고 새벽 좌선에 임하며, 선진님들의 일원상 강의, 총부 구석구석 걸으며 듣는 스토리텔링 총부순례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회차의 특별 훈련을 진행하며 교도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총부 방문을 독려한다. 중앙교구의 경우 ‘마음동행 프로젝트’, ‘대각개교절 봉축기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 익산성지 방문을 독려함을 넘어 ‘직접 참여’를 이끌었고, 중앙총부 방문에 함께 동참 해주어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

총부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현상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대각전’의 경우 지어진 당시에도 익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결혼식과 장례식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며, 지금은 새벽마다 종법사님을 비롯한 재가출가 선객들이 아침 좌선을 하고, 성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순례 공간과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의식과 법회를 진행하는 것 뿐 아니라, 신앙과 수행을 하는 공간, 최근에는 교도 이외에도 명상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들이 방문을 통해 원불교의 ‘고유성’을 가장 잘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약하고 있다.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 학림이 태동한 ‘공회당’ 역시 마찬가지다. 성스러운 공간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는 셈이다. 원기9년 소태산 대종사가 원불교 익산성지에 교화의 기지를 마련하고 총부를 건설한 이유도 결국 세상과의 소통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함이었으며 더 나아가 재가출가를 넘어서고, 교도뿐 아니라 모두의 성지로 활짝 열려있는 것임을 상기할 때 교당 역시 같은 역할과 공간의 쓰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당이 세워진 입지에 국한하고, 교당에 다녀가는 사람에만 한정 짓고, 신성함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III. 교당 구성 변화의 진단과 모색

1. 교화 활동의 현실

가. 교화의 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당이란 공간은 교화 활동의 장이다. 교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화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고, 4대를 시작하는 지금 교화의 장인 교당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발맞춰 공간개념을 창출해 가야 하는 과제 속에 현재의 교당이란 공간에 대한 현실 진단을 통해 미래의 교당 구조의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듯 교당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교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교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고 새롭게 정립해 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교리에 바탕하여 근본적인 교화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현규에 나타난 교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의 교화에 대한 인식과 현실 진단,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새롭게 전환해 가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교리에 바탕한 이론적 개념

개교 이래 재가·출가 전 교도가 교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교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교화가 원불교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교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교화가 무엇인지 몰라서라기 보다는 교화라는 것은 교화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제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기타 경제적 활동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결합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간단히 교화만을 말하는 것은 교화의 충분한 방안이 될 수가 없고, 교화의 방편도 무궁무진하여 한두 가지의 방편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⁸⁾

원불교의 개교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이 그 동기니라”⁹⁾라는 이 한 문장에서 원불교의 역할과 교화 이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음”¹⁰⁾으로써 실현하도록 밝히고 있다.

원기 33년 원불교 교명 선포후 제정된 『원불교 교현』에서 보면 “본교는 쳐쳐불상,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쳐선의 도리를 선포하여 전세계를 불은화(佛恩化)하고 그 일체중생을 선법화(禪法化) 하기로 목적한다”¹¹⁾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원불교 교현』 전문(前文)에서도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

8) 송천은, 「원불교 교화의 방향」, 『원불교사상 제16집』, p.104.

9)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p.21

10)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여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영(靈)과 육(肉)을 쌍전하며 이(理)와 사(事)를 병행함으로써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지향한다.¹²⁾”고 하여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화란 결국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는 것이며, 교화의 이념은 ①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것 ② 영육쌍전 이사병행으로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게 하는 것 ③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고, 생활속에서 불법을 닦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교화 목표로 첫째는 삼학수행으로 여래의 인격을 이루고 사운에 보은하는 봉공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 가족이 일원화되어 행복하고 안락하며 진화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셋째는 전 세계를 불온화하고 전 인류를 선법화하여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를 이루는 것¹³⁾을 말한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방향 아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동정이 골라 맞고,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며 도학과 과학이 병진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교화의 대이념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교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가·출가 교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화’라는 용어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를 짐작해 보면, 원불교의 교화의 주체와 교화의 대상은 그 시작이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교반백년 사상 대강연회’에서 유병덕 교수가 교화의 의미에 대하여 “종교인들이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종교인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관심에서 먼저 신변이나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불어넣어 주려고 선전하는 따위를 포교 또는 선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교화의 자세는 저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려 놓을 것인가 배려하는 자세다. 앞으로 종교는 인간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종사는 그가 스스로 저술한 정전에서나 그가 일생을 통해 설법한 것을 기록한 대종경에서나 먼저 인간됨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설정하고 타인 교화에 앞서 자기 교화를 역설하였다.”¹⁴⁾고 말한 대목은 인상 깊다.

2) 현규를 통해 본 교화

『원불교 교헌』(이하 교헌)을 비롯한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교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교단에서 교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교헌에는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교헌과 규정에 나타난 조항들을 점검하여 교화의 개념과 내용을 통해 교화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교화는 개교의 동기에 밝혀져 있듯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¹⁵⁾이라는 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행위를 ‘교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모든 행위를 체계화시켜 현규에 담았다고 한다면, 그 방법과 방향의 요소는 『교헌』의 ‘제3절 교화’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원불교 교헌』 33.04.26 교명선포후 제정.

12) 『원불교 교헌』 전문(前文), 109년 6차 개정.

13) 교화연구소, 『교화지침서』, 원불교 교정원 교화부, 원기72, 7쪽.

14) 『원불교신문』, 1971년 11월 1일자, 「원불교 출현의 역사적 의의」.

15) 『원불교 교헌』 제2조 목적

제8조(교전敎典) 본교本教는 정전正典과 대종경大宗經을 교전敎典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敎書를 편정編定하여 이를 전수專修하게 한다.

제9조(교역자敎役者) 본교本教는 출가出家재가在家의 남녀男女 교역자敎役者를 양성養成하여 교회敎化와 사업事業을 담당擔當하게 한다.

제10조(교당敎堂) 본교本教는 대중교회大衆敎化의 장소場所로써 교도敎徒와 인구人口의 집중지集中地에 교당敎堂을 설치設置하고 교도敎徒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응應하도록 한다.

제11조(훈련訓練) 본교本教는 정기훈련법定期訓練法과 상시훈련법常時訓練法으로 훈련訓練을 실시實施한다.

제12조(교화단敎化團) 본교本教는 십인일단十人一團의 교화단敎化團을 조직組織하여 교회敎化와 통치統治의 원활圓滑을 期한다.

제13조(영육쌍전靈肉雙全) 본교本教는 교도敎徒로 하여금 신앙信仰과 수행修行을 병진並進하고 직업職業에 근실勤實하여 영靈과 육肉을 쌍전雙全하게 한다.¹⁶⁾

교화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조항을 통해 교단적으로 ‘교화’의 범주로 잡은 키워드는 교전, 교역자, 교당, 훈련, 교화단, 영육쌍전이다. 이에 따라 대별해 보면, 교화를 하는 데 무엇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즉 교화를 하자는 것으로 교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고 있음을 알수있다. 여기에서 ‘어디서’에 속하는 교당과 ‘누가’에 속하는 교역자는 따로 언급할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교화활동 중심으로 훈련, 교화단 그리고 영육쌍전의 세가지로 교화의 대강을 잡아 살펴보겠다.

교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화활동은 훈련 아님이 없어야 하고 교화단을 통해 교화하여 결국에는 전인류 만 생령이 소태산 대종사가 밝힌 일원의 진리로써 영육을 쌍전하여 온전함을 얻고 낙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화라고 할 수 있다. 교헌의 내용을 풀어 요약하면 ① 교화는 훈련이다 ② 교화는 교화단으로 한다 ③ 교화는 영육을 쌍전하게 하는 것이다는 세개의 큰 영역으로 교화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나. 교화활동의 현실 진단

교화는 결국 훈련이다. 교당에서 전교도들이 하는 것에 훈련 아님이 없다. 전교도 나아가 전인류가 정기·상시훈련과 교화단을 통해 영육 쌍전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뤄 낙원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다. 우리는 보통 훈련을 말할 때 정기훈련을 생각한다. 정기훈련 중에서도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법은 정기와 상시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다. 그래서 취사를 위주하는 상시훈련이 우리의 공부에서는 정기훈련 이상으로 중요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꼭 훈련원에 입선하여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상시안에서도 얼마든지 정기훈련·상시훈련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침저녁, 하루 일상에서도 동·정간에, 자타력 병진으로 삼학수행을 통한 끊임없는 마음공부로 원만한 공부길을 밟도록 해놓으셨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를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¹⁷⁾라고 하였다. 이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관점에서 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6) 『원불교 교헌』 제3절 교화.

17) 『정전』 제3수행편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법회, 교화단, 훈련(프로그램), 대외활동(대상확대) 네가지 측면에서 교화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교당의 개념을 제한된 역할의 공간적인 개념을 넘는 ‘열린교당’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교화자가 교법을 펴고 교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하는 곳으로 그 개념을 확대한다면 교화도 열린교화의 자세로 접근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1) 법회 중심의 교화 활동

현재 교당이라는 교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화 활동의 현주소를 보면 그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교당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화 활동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정례법회와 약간의 수시법회, 그리고 그 법회도 설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법회의 꽃은 설교’라는 말이 있듯 설교를 통해 교도들이 마음의 안정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때 법회에서 차지하는 설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회 출석이 교단적으로 교화의 모든 것처럼 인식되고 법회 출석수로 교화의 능력을 평가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러한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그 본의를 파악하여 교화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서 법회를 올바른 형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도 4종 의무 중 하나인 법회출석은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교도의 4종 의무로 정해놓은 만큼 교당에서 법회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회 중심의 교화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 보다는 법회의 내용이 설교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교화 활동 중에 법회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회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화활성화를 위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회출석’이 교도 사종의무에 편입하게 된 시기와 그 본의를 알아야 향후 올바른 법회 활동의 전개와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교도 4종 의무, 법회출석

원불교에 입교하여 교도가 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의무가 ‘교도 사종의무’이다. 이 교도 의무는 원기 40년(1955년) 개교 축하식에서 교도 4종 의무 강조 기간에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이 조석 심고, 보은미, 연원지도, 법규준수였다. 이 네 가지를 거교적으로 강조하여 실행함으로써 교세의 내실과 확장을 기하자는 의미였다.¹⁸⁾

교헌 등 자료를 토대로 교도 4종의무의 변천을 보면, 원기 33년 교명 선포 후 제정된 교헌에 명시되어 있는 교도 의무는 교단을 유지(維持)할 의무,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매(每) 인당 구인씩 지도할 의무, 교헌과 법규를 준수(遵守)할 의무라고 되어 있다.¹⁹⁾ 그리고 원기 72년 교헌 4차 개정 때 현행 교도 4종의무 형태인 조석심고의 의무, 법회 출석의 의무, 보은헌공의 의무, 입교연원의 의무가 나타난다.²⁰⁾

18) 『교사』 제3편 성업의 결실 제3장 일원세계의 터전 1. 사종의무 여행과 교헌개정.

19) 『원불교 교헌』 제22조, (원기 33년)

20) 『원불교 교헌』 제16조, (원기 72년)

<표3. 교도 4종 의무와 변천>

시기	내용	출처
원기 33년	본 교단을 유지할 의무 본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매 인당(每人當) 구인씩 지도할 의무 교현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교현 (교명선포 후 제정 교현)
원기 40년	조석심고 보은미 연원지도 법규준수	원불교 교사 (원기 40년 개교축하식)
원기 72년	조석심고의 의무 법회출석의 의무 보은현공의 의무 입교연원의 의무	교현(4차 개정)

결과적으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법회출석과 관련한 부분만 살펴보면, 원기 72년 개정 교현에서 교도의 의무로 ‘법회출석’이라는 용어가 명시되기 시작했고, 6차 개정을 이룬 원기 109년 교현까지 그 표현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간단한 용어의 변화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시대적인 요구와 교단적 정책에 따른 심사숙고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더듬어 그 본의를 유추함으로써 법회를 통한 새로운 교화 방향을 모색하고 전환해가는 데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에 나타난 원기 40년에 발표된 사종의무와 원기 72년 교현상의 사종의무의 변화 과정에서 법규준수가 법회출석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가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으로 활동하던 원기 9년(1924)부터 원기 31년(1946)까지 공식적으로 처음 간행된 경전은 원기 12년(1927)에 간행된 『불법연구회규약』이다. 교단 법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교단을 만들기 위한 소태산 대종사와 선진들의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법규 안에는 원불교 교리와 조직, 문화의 정체성이 들어있으며 원불교의 미래 방향성도 담겨있다. 그 구성을 보면 총 6장 22조의 규약 이외에도 본회의 유래, 취지설명, 뒷부분에는 삼학팔조의 제목과 삼십계문, 솔성요론, 고략에 대한 설명,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시주의사항 등의 교리까지도 싣고 있다. 『불법연구회규약』은 초기 교서로서 법규만이 아니라 경전의 역할을 겸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와 같은 면에서 소태산 대종사가 『정전』·『상시응용주의사항 2조』에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고 초기 교단일 때부터 교도 4종 의무에 ‘법규준수’를 포함한 것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경전만 공부하고 법규를 공부하지 않으면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를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고,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실현할 수 없을 것²²⁾이라는 큰 뜻이 담겨있다. 그래서 법규연습은 선택이 아니라 원불교 교도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임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법규준수가 법회출석으로 변화된 상관성을 찾기로 하면 명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회가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²³⁾이라고 할 때, 이러한 법의 훈련과

21) 『원불교신문』 2024년 3월 15일자, 「다시읽은 불법연구회, 불법연구회 규약」.

22) 『원불교신문』 2023년 1월 2일자, 「왜 법규연습인가」.

23) 『원불교예전』 제3교례편 제3장 법회

법규연습이 모두 이루어지는 장이 법회이기 때문에 ‘법규준수’를 ‘법회출석’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원래 초기 교헌에 제시된 의무조항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초기 교헌에 나타난 교도 의무와 현행의 교도 의무를 비교해 보면, 초기 교헌에서 교단을 유지할 의무는 현행 보은헌공의 의무로, 매 인당 구인씩 지도할 의무는 입교연원의 의무로, 나머지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교헌과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조석심고의 의무와 법회출석의 의무로 변화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의 조석심고와 법회출석이 교리에 대하여 훈련받을 의무와 교헌·법규를 준수할 의무의 내용을 다 담아 낸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종의무의 변천 과정을 살펴 내용을 종합해볼 때 원래 교도의 의무는 법회출석이라는 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훈련과 법규준수의 의미에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회에 담겨야 하는 내용도 결국에는 교리 훈련과 초기 규약의 내용에 담긴 경전과 법규의 내용을 모두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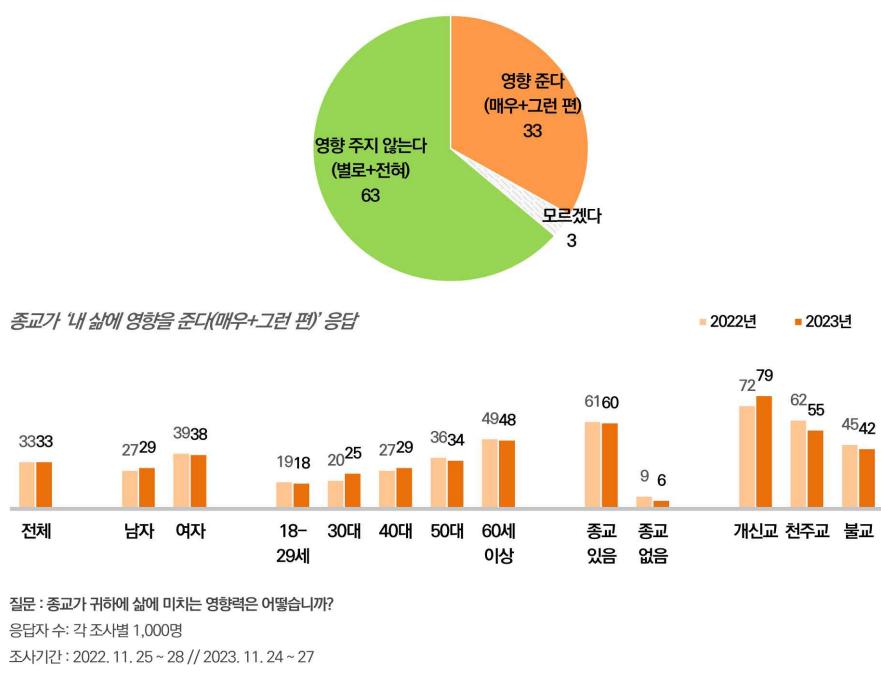
또 교도 4종 의무에 법회출석을 명시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교단 초기에 교세확장과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도 불리기에 법회 출석이 중요하고 양적 성장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본다. 실제 대산종법사(1962(원기47년)~1994년(원기79년))의 경륜과 주요 정책에 보면 교단이 갖추어야 할 실력으로 교도증가가 있다.²⁴⁾ 신생교단으로서 미약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고 법회 출석수가 무엇보다 절실하던 시기였기에 교도의 의무로 정해서 교도라면 꼭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법회출석이 요구되어졌고, 교당의 법회출석을 하는 교도만이 교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학자들이 미래사회를 전망할 때 탈종교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종교인이 수가 종교인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상으로는 2015년부터다. 2005년에는 종교인이 52.9%였고, 비종교인이 47.1%였는데, 10년 뒤인 2015년에는 각각 43.9%와 56.1%로 크게 역전된 것이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2014년에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비율이 50%대 5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2021년 조사에서는 40% 대 60%로 비종교인 증가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탈종교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종교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람들이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교당이라는 공간에 교도를 모으기 위한 교회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교당이라는 공간에 법회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24) 교정원 기획실, 「1. 역대 종법사님의 경륜과 중요정책」『교단 2대 말 공청회 자료』, 1982, 10쪽..

<그림3> 종교와 삶의 영향

(단위 : %)



질문 : 종교가 귀하에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1. 25 ~ 28 // 2023. 11. 24 ~ 27

[출처: 한국리서치] 25)

원불교 교도 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감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교회해야 할 대상도 자연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입교 교도는 계속 줄어들고 기존 교도들은 고령화되면서 전체 교도 수 증가를 목적하거나 교도불리기 등의 양적 성장 위주의 교회 활동에 집중하고 법회 출석으로 교화의 역량을 평가하는 정책을 유지해간다면 결과는 늘 목표 미달일 것이며, 교회에 대한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당의 개념 확장과 더불어 법회의 개념을 전환하여 오직 다방면으로 교리의 훈련을 시키고, 올바른 경전 법규 연습을 통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회 활동의 내용

법회를 통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설교 중심의 법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원기 102년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교단 정책 관련 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설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법회 형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재가 52.3%, 출가 55.5%로 높게 나타났다.²⁶⁾ 이것은 교단적으로 설교중심의 법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회의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 설교에 정성을 쏟으며 법회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묻는다면 훈련이 없기 때문

25)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 효능감 및 영향력(2023.12.27.)

26) 정책연구소, 「원기 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17, 16쪽.

이라고 말하고 싶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는데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문답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른 공부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훈련을 법회 안에서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회는 설교중심이라는 것이다.

원불교의 공부는 동정간 삼학을 병진하여 끊임없이 마음공부 할 수 있도록 짜놓은 법이다. 정기 안에 상시가 들어있고, 상시 안에 정기가 들어있다. 일년을 놓고 봄도 정기와 상시가 있고, 하루를 놓고 봄도 정기와 상시가 있다. 또 상시훈련은 자력을 위주한 ‘상시응용주의사항’과 타력을 위주한 ‘교당내 왕시주의사항’이 맞물려 돌아갈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교단 초기에는 삼순일(三旬日, 1일, 11일, 21일)로 매월 예회를 보되, 신(信)을 어긴 이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시고, 또는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을 두어 단원들의 10일 동안 지낸바 마음을 청(靑)·홍(紅)·흑(黑)점으로 조사하여 그 신성 진퇴와 실행 여부를 대조케 하여 마음의 결합됨과 신성의 철저함을 지도하셨다²⁷⁾ 모든 회원들이 함께 보면 예회고, 단별로 진행하면 단회였다. 단회는 단원들의 일기 점검과 의견제출, 단법에 대한 교육 등 상시훈련의 공부가 매달 단회를 통해 진행됐고, 예회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했다. 교당은 곧 훈련도량이며,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설교 중심의 예회가 아닌 상시 생활 속에서의 공부해온 정도를 점검받는 시간이며, 법설과 문답·감정·해오를 통해 공부길을 잡는 정기훈련의 장이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교화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3) 디지털 시대, 사이버 교화

나아가 현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교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법회를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공동체 정신과 종교성 함양이라는 종교가 갖는 특수한 정신 문화 때문에 탈종교시대라 규정짓는 사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면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수 있기에 그에 맞는 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종교계가 대면 의식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위기의식을 가졌다. 대면 활동의 제한 속에서 그 대안으로 온라인 의식을 진행하였지만 그동안 대면을 중심으로 유지해온 종교의식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면 활동에 대한 동경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이러한 의식의 바탕에는 종교의 올바른 신앙 생활은 공동체의식 함양과 신앙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전의 대면 종교활동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만큼 사람들의 대면 종교 참여율은 낮다. 그리고 대면 종교 활동을 정상회복 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도 코로나 시기에 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종교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졌고, 비대면 사회활동이 일반화 되어가는 때에 코로나가 비대면 문화를 촉진시켰고 종교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원기 82년(1997) 1월에 ‘PC통신 교당’이 설립됐다. 천리안, 나누우리, 유니텔, 넷츠고 등에 통신 동호회를 결성 교회활동과 신앙상담을 담당했으며, 인터넷교당을 설립해 사이보교화를 적극적으로 펼쳤었다.²⁸⁾ 거의 30년 전부터 사이버 교화에 관심을 갖고 빠르게 시작하였다. 디지털 혁命을

27)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 3장 제생의세의 경륜 4. 첫 조단의 훈련.

기반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지털 기반의 교회 활동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무조건 해야 하는 교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0여 년 전 사이버 교당과 같은 선도적인 교회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더욱 절실해졌다.

코로나 19로 온라인 예배 시대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10대 교회로 꼽히는 한 대형교회의 네트워크 교회가 예배당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했다. 대형교회의 파격적인 시도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포터하우스덴버(덴버교회)’는 교회건물을 매각하고 대면으로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대형교회로 기사화됐다. 이들이 교회 매각을 고민한 이유는 성도수와 재정 감소다. 이 교회의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향해 성도와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했으며 모일 수 없는 상황과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다른 교회들처럼 현금 감소를 경험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의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덴버교회 온라인 예배엔 평균 1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 유튜브 주간 조회수는 30만명을 기록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성공적인 대안으로 입증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결정이라 판단하고, 물리적인 공간은 포기하는 대신 매년 수천명의 덴버 지역 가정에 식량을 공급해 온 푸드뱅크 사역과 지역 봉사 등을 계속하며, 자선단체도 출범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²⁹⁾

이 교회에 대한 반응은 교회내에서도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대다수 교회에는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디지털 교회가 훌륭한 봉사활동이자 선교학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분분하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교회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는 종교로서 정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의 명확한 해법이 없고 더하여 하나의 예지만 교단적으로 출석도 사업성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 속에서 온·오프라인의 참석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복잡다단하게 수반되는 문제들이 분분한 의견들의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회 활동의 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추진하고, 이후 도출되는 문제를 개선해가면서 정착시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교회단 운영과 활동의 정체(停滯)

원불교 안에서 ‘교회’만큼이나 오랜 시간 뜨거운 주제면서 연구 대상이 교회단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활동 조직으로서 십인일단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셨다.³⁰⁾ 그리고 정산 종사는 ‘이단치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앙에서는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회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셨다.³¹⁾ 바로 교회단은 원불교 교회와 통치의 기본조직이며 원리임을 알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륜을 이어받아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교회단을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교회단 조직과 운영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시간에 비해 교회단으로 인한 교회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교회단 활

28) 『원불교신문』 2000년 3월 17일자, 「사이버세계 원불교 길잡이」.

29) 『국민일보』 2022년 1월 14일자, 「예배당 없는 온라인 교회」.

30) 『대종경』 제1 서품 6장

31) 『정산종사법어』 제4 경륜편 10

성화의 생장점을 대종사님의 교화단정신(조단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교단 전체가 함께하기에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왔을 것이다. 실제로 교화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재가 81.3%, 출가 71.6%로 우리 교단의 교화 조직으로서 교화단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러한 교화단에 대한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요구는 교헌부터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교당규정」 '제5장 교화'의 하위 조항으로 '교화단'을 제시하였고, 「교당교화단규정」(이하 교화단규정)을 두어 교화단의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화단 규정에는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단장·중앙, 제4장 단회, 제5장 훈련, 제6장 활동, 제7장 성적, 제8장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교화단의 정의부터 조직방법, 활동내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당규정에 나타난 교화단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교화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4조(교화단) ①교당의 교회는 10인 1단의 교화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감(주임)교무는 교당교화단의 총단장이 된다.

③ 교화단의 운영과 활동 등은 교화단 규정에 따르며, 입교·교화·훈련·신앙·봉공활동의 중심이 된다.

④ 단장은 단원들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무와 상의하여 처리 한다.

⑤ 단장은 매월 교화단회를 통하여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⑥ 교화단이 많을 경우 단장단을 조직한다.

⑦ 단장단 회의는 월1회 실시한다.³³⁾

그리고 교화단규정의 조항들은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교화단의 역할인 제5장 훈련에 대한 내용과 제6장 활동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장 훈련

제17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정전의 훈련법과 교구의 훈련규정에 근거 하여 다음 조항을 실시한다.

1. 법계에 따른 단계별 교도훈련.
2. 교리의 훈련(독송해의실천).
3. 예법의 훈련(예법의 해의실천보급).
4. 비교도 교화훈련.
5. 생활개선훈련(가정·마을·직장).
6. 단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훈련.
7. 보은봉공 활동을 위한 훈련
8. 신앙생활 지도.³⁴⁾

제6장 활동

제20조(단활동) 단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교리이념을 구현하고 일원세계를 건설 하기 위해 담당교무의 지도하

32) 「원기 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원불교 정책연구소, 14쪽.

33) 「교당규정」 제5장 제25조 교화

34) 「교당교화단규정」 제5장 훈련 제17조 훈련.

에 다음과 같은 단활동을 한다.

1. 교도·비교도의 일체 교화활동.
2. 대외 봉사활동.
3. 교당행사 분담활동.
4. 단 및 단원간의 친목, 애경상문활동.
5. 단원의 생활개선 활동.
6. 기타 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³⁵⁾

교화단의 기능과 역할은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교화조직이다. 교화단은 교도들의 교화와 훈련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를 고민한다면 교당의 교화조직으로서 교화단에 대한 조직과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사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봄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교화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교화단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교화단의 정체는 바로 교화의 정체와 맞물려 있으며, 이 교화의 정체는 단순히 교역자의 열정이나 역량부족만이 아닌 공부와 훈련, 의사소통, 삶의 질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서로 얹혀 발생한 결과이며, 이러한 교단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교화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은 바로 교화단을 통한 이단치교를 구현하는 데 있다. 교화단 조직으로 교단조직을 혁신해 갈 때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⁶⁾ 그런데 어떻게 혁신해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원기 16년(1931)년에 십인일단의 단 제도 체제로 조직 정비가 단행되었고 이런 체제정비를 위해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이 제정되게 되는데 이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은 수위단의 조직 및 선거 방식, 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장의 역할 등이 상세하게 법제화 되어 있으며, 단규세칙을 두어 단장으로 하여금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단치교의 교단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원기 34년(1949)에 발행된 교화단법인 『원불교 내규』에서는 “본교의 교법을 일반 교도에게 훈련시키며 모든 연락을 긴밀히 하여 대중교화에 유능한 기관이 되기로 한다”고 하여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³⁷⁾ 현재 『원불교교헌』 제 12조에서 “본교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위단회규정」, 「출가교화단규정」과 「재가교화단규정」에 의하여 교화단으로 교단 통치와 교화를 하는 이단치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을 통해 통치와 교화사업을 전개하여 인류를 교화하고 그로하여금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십인일단의 단 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일부 교당에서 교도관리 명목의 교화단 조직을 폐지하는 정도와 그 조직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교학훈련부에서 제공하는 교화단 운영지침서인 『교화단마음공부』를 공부하는 정도의 교화단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단 4대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교화단 내실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교화단 정신이 살아나도록 그 운영과 활동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화단의 정체성이 살아나서 교화활성화를 이뤄가

35) 「교당교화단규정」 제6장 활동 제20조 단활동.

36) 백준흠, 「이단치교 구현을 위한 제언」,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2, 33쪽.

37) 백준흠, 위의 책, 2012, 37~38쪽.

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결국 교화단 조직 안에서도 훈련이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교화단이 살아나야 한다.

교화단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진작시키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의 원칙과 세칙의 핵심은 공부와 사업의 진작과 의견제출제도의 활성화에 있다. 훈련법으로 공부를 진작시켜 법위를 향상시키고, 의견제출 제도와 총단회 등을 통해 상의하달 하의상달의 소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³⁸⁾ 그리고 대중교화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법으로 교도를 훈련시키고 나아가 그 법위를 넓혀가는 교화의 중심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있는 단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력있는 단장 양성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회적인 훈련이 아닌 신입교도부터 실력있는 지도자가 되고, 결국에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시급하다.

3) 훈련의 내실화와 대중화

교화는 곧 훈련이라고 했다. 원불교에서 훈련은 실천과 더불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단어다. 『원불교교헌』에 제시된 ‘교화’의 내용을 보면 곧 ‘훈련이 교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교의 동기에서도 교화의 큰 방법 두 가지 중 하나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훈련’은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마음공부’라는 개념도 모두 ‘훈련’이다. 앞서 다룬 법회나 교화단도 모두 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불교 교도라면 법회와 교화단을 통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다.

원불교에서 훈련은 크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다. 정기훈련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그 정기훈련 과목으로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 11과목이 있으며,³⁹⁾ 상시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육조가 있다.⁴⁰⁾ 교단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훈련은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벗어나지 않는다. 소태산 대종사는 기성 종교들의 각기 나눠져 있는 계·정·혜 삼학의 과목들을 우리는 병진하게 하게 하였으니,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일기·염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게 했으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과거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다⁴¹⁾고 하셨다. 여기에서 인상 깊은 대목은 ‘누구든지’이다. 그리고 원불교의 개교동기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화이념을 생각한다면 ‘누구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누구든지 이 법대로 훈련하면 변화될 수 있고,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교화이다. 그것이 앞으로 원불교의 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우리 교도만 할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교법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훈련 문화에 대해 살펴보자. 교단적으로 훈련이라고 하면 보통 정기훈련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상시훈련이 살아나야 소태산 대종사의 법이 실현되는 것이며, 훈련중심의 교단 문화, 그중에서도 상시훈련이야 말로 교화의

38) 백준흠, 「이단치교 구현을 위한 제언」,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2, 52쪽.

39) 『정전』 제3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40) 『정전』 제3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41) 『대종경』 제2교의품 20장.

정체성이다.

보통 훈련 강화와 내실화를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 대체적으로 훈련원을 늘리고, 훈련시설을 개선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우리의 교법을 잘 훈련시키고, 실행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훈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훈련을 잘하게 할까’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것은 쉽게 해결하기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대적인 환경 요인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복합적이다. 그런데 늘 훈련의 내실화를 논할 때 우선 먼저 그러한 정기훈련 관점의 내용만을 고민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항상 원불교의 훈련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으며 생활에 돌아와 지속하는 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우리 교법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상시훈련이 체계화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속있는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 전문 공부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상시의 공부꺼리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련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 정기훈련은 훨씬 더 알찬 시간으로서 자연 진급의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

또 우리가 앞으로 훈련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누구든지’라는 부분이다. 우리의 훈련을 보면 보통 교도를 대상으로 교도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주였다. 교당에서 행해지는 법회나 기타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 교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아쉬움을 말해보자면,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고 신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거나 사회 일반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원불교 훈련은 삼학병진이라고 하여 11과목을 1일, 혹은 2일의 훈련기간의 프로그램에 모두 녹여내고자 하는 의욕충만한 마음은 훈련후에 오히려 피곤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편적인 몇가지 아쉬움이지만 우리 교법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잠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다. 우리의 수행은 삼학 병진을 해야 원만한 수행은 맞지만 꼭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다. 특화시키면서도 단순화하여 그것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일상 생활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이웃종교들도 교도 만들기 위한 양적 성장의 활동을 넘어 각 종교의 교리와 이념을 담되 접근은 일반적이면서 대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국가 세계와 호흡을 함께 하며 그 속에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문화 ‘템플스테이’를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불심깊은 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부터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템플스테이,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 대상을 특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30대 미혼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은 대중문화로 승화시켜 일반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이 미혼남녀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2023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1, 2기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당시 전화문의·신청 2000여건, 이메일 접수 1000여건 이상이 쏟아지며 신청 반나절 만에 마감됐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만족스러운 후기에 힘입어 횟수를 매년 확대하고, 다양한 사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는 종교에 상관없이 30대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⁴²⁾는 사실에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좋다고 가져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화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쳐해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방편은 무궁무진하게 달라질수

42) 『법보신문』 2024.02.21.(1718호) 발췌.

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이가 있다면, “대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라고 하시며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에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한다⁴³⁾고 말씀하셨다. 이 법문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만 한다. 우리의 교화 방법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는 각각 사람의 근기 따라 베푸는 것⁴⁴⁾이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을 어렵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교화 대상에 맞게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훈련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교당중심 활동과 사회참여 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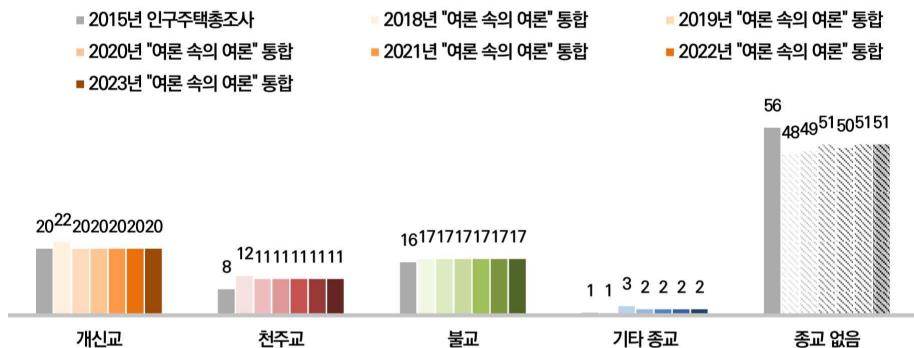
현재 교당 중심으로 행해지는 교화는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불교가 4대종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가톨릭, 개신교, 불교의 세 종교에 비하면 여러 방면에서 그 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아직도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아래 보고서 결과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리서치에서 매년 조사하는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조사에서 원불교는 독립적인 종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시 원불교 교도가 있었다면 아마 기타 종교로 응답했을 것이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기타종교로 분류했는데, 원불교도 이 기타종교 중에 한 종교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원불교의 위치를 실감나게 하는 것은 기타종교가 차지하는 2%의 수치가 개신교 20%, 천주교 11%, 불교 17%라는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적은 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가 현재 4대 종교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교도수 등의 양적인 규모를 평가한 것이 아닐 것이며, 아마도 국가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나 역할을 고려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싶다.

43) 『대종경』 제2 교의품 29장.

44) 『대종경』 제2 교의품 23장.

<그림4> 종교인 비율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믿는 종교 없음 50% 내외



질문: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2018년 1월 이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의 종교 응답 비율을 연 단위로 재계산한 값

조사기간: 2018년 1월 ~ 2023년 11월(2019년 2월까지는 월 1회, 이후부터는 격주 1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총 96,000명

[출처:한국리서치]45)

앞으로 원불교가 양적인 교세 확장을 이뤄 대형 기성종교들과 그 규모를 같이 하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원불교는 양적 규모로 존재가치를 드러내기보다 지금처럼 사회에 끼치는 기여도나 역할,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존재가치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은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가 세상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원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히 요구되는 자세다.

오늘날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들고 있고, 종교로서 대중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기성 대형 종교들의 활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인 신도수 불리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존재감 찾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교당내 교도를 위한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활동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까지는 원불교의 교회 활동은 거의 대부분 교당 교무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교도들이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교당 내 구성원인 교도를 위한 교도에 의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왔다. 교단의 4축 2재 등의 기념일이나 연말연시와 같은 특별한 날에 지역주민을 위한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그 결과 그러한 외부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오히려 더 안으로 내실을 다지자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회활동을 함에 있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자칫 교도 불리기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결실은 교도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는 탈종교 시대라 부를 만큼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고 종교활동에 대해 요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성인 4,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3%가 무종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 무종교인은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2004년 43%에서 약 20년 만에 20%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

45)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2023.

간 종교인 숫자는 빠르게 감소했다. 2004년 57%까지 늘었던 성인 종교인은 2017년 무종교인 인구에 추월 된뒤 2023년 37%로 급감했다.⁴⁶⁾ 그러나 성인인구 탈종교화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층 종교인구의 감소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갤럽이 2021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종교인의 절반가양인 54%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1997년 26%, 2004년 37%, 2014년 45%, 2021년 54%로 계속 증가했다.⁴⁷⁾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양적인 교도 불리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고 울을 넘어 그 은혜가 미치게 하는 궁극적인 종교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한 실천의 시작으로 교당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서 확실한 존재감과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이고 유익한 활동들을 해야하고 교당은 그러한 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 활동의 중심 조직은 교화단이 되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교화단규정」 제6장 활동에서 교화단이 해야할 활동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교도·비교도의 일체 교화활동.
2. 대외 봉사활동.
3. 교당행사 분담활동.
4. 단 및 단원간의 친목, 애경상문활동.
5. 단원의 생활개선 활동.
6. 기타 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⁴⁸⁾

이 중에서 1항과 2항은 교리이념을 구현하고 일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비교도의 일체 교화 활동, 대회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의 지침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화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당규정」 제5장 교화 제 25조에 보면, ‘지역·단체·직장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 ① 지역장은 지역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② 단체(사회)장은 소속된 단체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③ 직장장은 소속된 직장에서 교화를 주관한다. ④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은 교화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감(주임) 교무가 임면한다.⁴⁹⁾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 규정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원무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원무규정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교당규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규정상으로만 볼 때 원무와 교당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은 그 개념이 달름을 알 수 있다.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은 교화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감(주임)교무가 임면하는 것으로 소속 교당의 교화 활동의 한 분야로서 지극히 교당교화의 개념인 반면, 원무는 소속교당 교무의 추천과 교구장의 동의를 얻어 교정원 총무부에 지원하며,⁵⁰⁾ 종법사로부터 사령장을 받는다. 교당 단위의 교화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대외 활동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교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을 양성하고 역할을 주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6) 『한국일보』 2024년 1월 23일자, 「한국 탈종교화 가속화, 성인중 무종교인 63%」.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22/1498879>

47) 한국갤럽,‘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종교현황’, 202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48) 「교당교화단규정」 제6장 활동, 제20조 단활동.

49) 「교당규정」 제5장 교화, 제 25조 (지역·단체·직장장).

50) 「원무규정」 제6조 지원.

교단 제4대를 시작하며 “사오십년 결실, 사오백년 결복”이라고 하여 우리는 이제 세계로의 도약을 꿈꾼다. 우리의 모든 공부와 사업의 방향을 세계화에 맞추고 모든 정책과 과제를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일단은 교당 밖 울을 넘어선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는 적어도 지역사회에 원불교를 알리고 든든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화활동과 정책이 필요하다.

2. 교역자 역할에 대한 현실

가. 「교헌」과 「규정」을 통해 본 교역자 정의

본 교단의 구성원은 크게 ‘교도(教徒)’와 ‘신도(信徒)’로 되어 있으며, 교도는 출가교도(전무출신)과 재가교도(거진출진)로 구분하고 있고,⁵¹⁾ 이들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증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임도함”⁵²⁾이라는 본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교화’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방향의 요소는 『교헌』「제1장 총강, 제3절 교화」에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교전, 교역자, 교당, 훈련, 교화단, 영육쌍전’이다.

여기서 교화는 정기·상시훈련과 교화단 조직 운영을 통해 신앙·수행의 병진을 쌍전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화의 공간이 ‘교당’이라면 이를 주재하는 직접적인 행위자 또는 역할자는 ‘교역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헌』에 밝힌 바와 같이, “본교는 출가·재가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광의적 정의로는 교단에서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교역자의 권한은 교당-교화-교역자 관계에서 출가로서 교감(주임)교무는 ‘종법사의 대행자로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 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며, ‘출가교역자는 교감(주임)교무를 보좌하며 직무 분담을 통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⁵³⁾ 재가는 회장·부회장·원무·단장·중앙·주무·순교로 구성되어 있다.⁵⁴⁾ 이들은 직무분장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다른 권한을 행사하고 교감(주임)교무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교당 임원간의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따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감(주임) 교무가 진다.⁵⁵⁾

나. 교역자 역할의 현실 진단

인구 또는 성비 등의 변화는 사회의 경제적·제도적 활동 등 전반의 수준과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생활환경과 문화 등 수반되는 작용들은 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정체성이기에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교화를 주재하고 있는 교역자 또는 구성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작용에 관한 몇 가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단, 본장의 내용 구성에 관한 전제 사항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교단 구성원의 변화가 여성 출가교역자에서 남성 출가교역자로 변화한다는 문제 정의 속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51) 「교헌」 제14·15조; 전무출신 정의와 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김은희, 「원불교 전무출신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고시용, 「원불교 전무출신에 대한 연구」,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52) 「교헌」 제2조 목적

53) 「교당규정」 제4장 임원 제21조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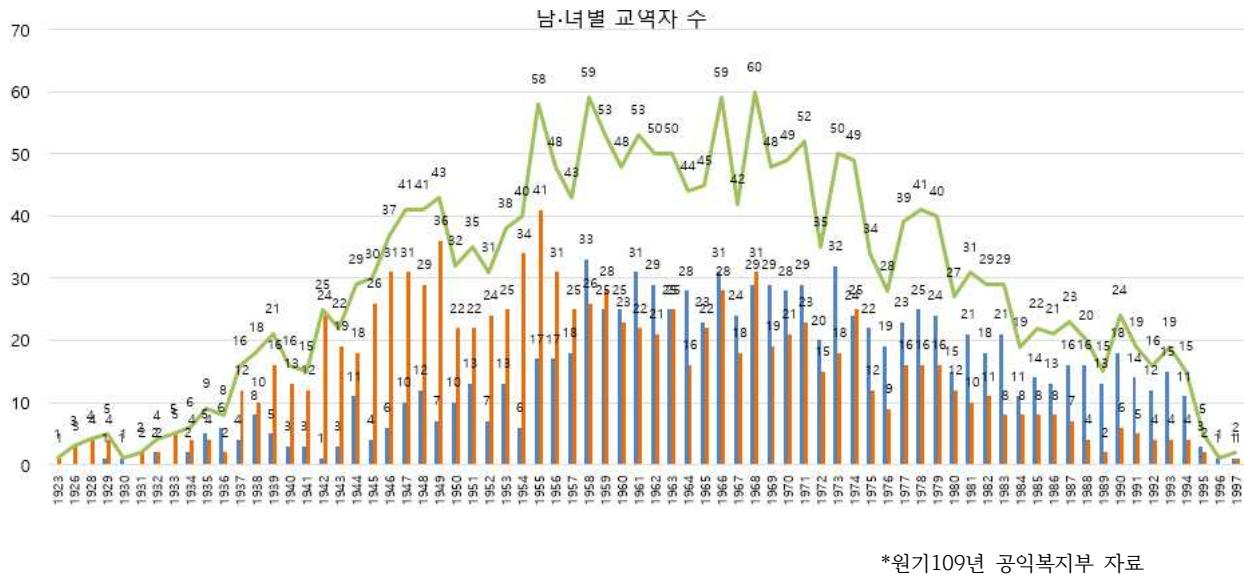
54) 「교당규정」 제4장 임원 제21조 직무

55) 「교당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업무와 책임

1) 교역자 성비 변화

<그림5> 남·녀별 교역자 수

(단위 : 명, 기준년 :서기)



*원기 109년 공익복지부 자료

현재 교단의 출가교역자는 총 2,094명(열반, 제적, 자퇴 제외)⁵⁶⁾으로 남녀 성비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1923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출가교역자는 727명, 이 시기는 여자 교역자 수가 많은 세대로 남자는 195명, 여자는 532명이며 1:2.72의 비율로 여자가 남자보다 2.72배가 많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1세대와 2세대라 할 수 있는 195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의 출가교역자는 1,144명, 이 시기는 남자 교역자의 수가 많은 세대로 남자 653명, 여자 491명이며 1.33:1의 비율로 남자가 여자보다 1.33배 가 더 많다. 특히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교단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변화하는 중요 포인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 1975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를 살펴보면 519명 중, 남자 346명, 여자는 173명으로 2:1의 비율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가 많다. 무엇보다 여교역자 수가 20명 미만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녀별 교역자 수가 역전 현상은 1958년생이 분기점에 해당이 되며, 1923년생부터 1997년까지의 전체 2,094명의 교역자 분포는 역삼각형의 인구 절벽 현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살펴보면, 교단의 남녀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특히 그 변화의 폭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교단 문화 또는 교회 주체가 여성 교역자이었다면 이제는 남성 교역자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6) 대기 9명, 집무 1329명, 누적퇴임자 558명, 휴무 123명, 휴양 14명, 휴역 59명(109.01.16 기준, 「원기 109년 공익복지부 자료」)

2) 남·녀 출가교역자 근무 현황

<표4> 원기 109년 전체 근무자 중 남·녀 비율

구분			교화직				전문직				봉공직			
근무처		교당	기관 (교구, 단체, 법인, 총부)	비집무	계	교당 (교구)	기관 (법인)	비집무	계	교당 (교구)	기관 (총부)	비집무	계	
남	871	전체	339 (42%)	340 (43%)	118 (15%)	797 (100%)	5	32	5(12%)	42	2	17	5	24
		미 혼	136 (47%)	111 (39%)	41 (14%)	288 (100%)	1	11	5	17	0	9	1	10
		기 혼	203 (40%)	229 (45%)	77 (15%)	509 (100%)	4	21	0	25	2	8	4	14
		전체	406 (64%)	164 (26%)	65 (10%)	635 (100%)	4	7	2	13	2	9	0	11
여	659	미 혼	403 (64%)	164 (26%)	64 (10%)	631 (100%)	3	6	2	11	1	2	0	3
		기 혼	3	0	1	4	1	1	0	2	1	7	0	8
		전체	1,530	745 (52%)	504 (35%)	183 (13%)	1432 (100%)	9	39	7	55	4	26	5

*원기109년 총무부 자료

원기 109년 퇴임자와 열반자를 제외한 전체 남녀 교역자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1,530명 중, 남성은 871명, 여성은 659명으로 남성이 212명이 많았다. 비집무자를 제외한 교화직 근무자를 보면 남성은 교당 근무자 339명과 기관 근무자 340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미혼자 중에서는 교당 136명, 기관 111명으로 교당 근무자가 많았으며, 기혼자 중에서는 교당 203명, 기관 229명으로 기관 근무자가 많았다.

여성은 교당 근무자 406명, 기관 근무자 164명으로 교당 근무자가 많았다. 미혼자는 교당 근무자 403명, 기관근무자 164명이었으며 기혼자는 교당 3명, 기관 0명이었다.

현재 교당 근무자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기관 근무자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앞서 남성 출가교역자 특히 기혼 남성 출가교역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 중, ‘자녀 학령기(35~55세)의 기혼 남성 출가교역자’에 살펴보겠다.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 2023)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의 남성 33.7세, 여성 31.3세 기준으로 교단의 여성교역자를 제외한 기혼 남성 출가교역자 결혼 평균 나이를 35세로 설정⁵⁷⁾하여 2~30대(1985~1997년 생), 40대(1975~1984년 생), 50대(1965~1974년생), 60대(1964년생 이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57) 교단 내의 기혼 남성 출가교역자의 ‘기혼 시기’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다.

<표5>자녀 학령기(가정 35~55세)의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현황

구분		교화직													교당	기관 (교구, 단체, 법인,총 부)	비집무	계	가사 휴무
근무처		급지별																	
남 871	기혼	전체	특급 계	교 기 계	1급 교 기 계	2급 교 기 계	3급 교 기 계	4급 교 기 계	5급 교 기 계	6급 교 기	203	229	77	0	23				
		2~30대 (85~97년)	3	2	1	7	3	4	1	1	11	1	100	0	0	0	0	15	5
		40대 (75~84년)	17	3	148	2	6	5	0	5	36	1	350	0	0	4	2	16	125
		50대 (65~74년)	59	8	51	13	7	6	16	106	41	142	614	140	16	124	23	185	81
		60대 이상 (64년 이전)	42	6	36	16	106	17	143	36	1719	14	131	11	7	4	35	278	93
																		68	46

*원기109년 총무부 자료

기혼남성 출가교역자(기혼자) 중, 교당보다 기관에 근무자가 약간 많은 가운데 연령대로 보면 50대(84명)>60대(68명)>40대(62명)>2~30대(15명)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급지별로는 특급지와 3급지 기관에 많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급지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3급지에서는 40대와 50대 근무자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교당과 기관 근무에 따른 연령과 급지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특급지 기관 51명과 교당 8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급지 기관 35명과 교당 1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남성 출가교역자들이 경제적·(육아)시간적 확보를 위한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가능성으로 보인다.

3) 정토의 자녀 양육과 경험

기혼남성 출가교역자가 많아짐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 중 하나가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단의 교역과 가정의 가장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아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양육효능감(Dumka, Storerzin- ger, Jackson과 Roosa, 1996)⁵⁸⁾’을 통해 기혼남성 출가교역자로서의 교화 활동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 높을 때, 교역자로서의 삶 또한 높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될 때는 교역자의 삶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중 30~40대가 교당의 교화 현장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이라는 불안정한 요소가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작용은 심리적·물리적 환경으로 가중될 때, 양육효능감이 낮아져 결국 교화 활동하는 데 소극적 수행이 될

58)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역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포함하는데 이는 자아효능감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최형성,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수밖에 없다. 그 불안정한 환경과 요소에 대한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원불교 정토의 자녀 양육 경험⁵⁹⁾

	주제군	주제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의 일에 대한 생각	남편 교무와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교무로서 남편의 삶을 지지한다 교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남편은 휴일이 불규칙하다 남편은 언제든지 가족 곁을 떠날 수 있다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인식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아빠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 엄마가 아빠의 자리를 애를 써야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다 가정은 정토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덜 느낀다고 여겨질때가 있다
	남편의 부재	평소에 예민하고 아이들에게 참을성이 잘 안생긴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감정 변화가 많고 불안하다 내가 다른 일이 바쁘면 별일 아닌 것에도 짜증을 낸다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볼 때가 있다 잔소리를 자주 하게 된다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내 컨디션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양육은 인내와 고통의 과정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교육이나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양육의 어려움	아이를 낳고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 아플 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아이를 돌볼 때는 밥도 세대로 먹을 수가 없다 양육을 혼자할 때 너무 버겁고 힘들다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면 내 역할이 커진다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받고 싶다
		부모님 혹은 대리 양육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이를 믿고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고 싶다
		선배 정토님들의 삶의 경험을 듣게 된다 옛 정토님들처럼 할 자신이 없다
		교무의 용금이 개선되길 바란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교단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아빠로서의 삶도 존중되길 바란다 원친을 배려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교단에 대한 바람	개선되길 바라는 점	

59) 김반디, 「원불교 정토의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제42회 원불교사상연 학술대회, 2024에서 일부 발췌 및 재인용.

위의 연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기혼남성 출가교역자의 배우자인 ‘정토’는 가족부양 전담과 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불안 척도’에 대입하여 그 요인을 살펴보면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능력불안은 ‘양육자신감, 자녀이해, 미래불안, 평가불안’을, 관계불안은 ‘애착불안, 근접회피, 정서적 분리, 관계전이’를, 보호불안은 ‘유대결합, 과잉보호, 전지적 침해’ 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⁶⁰⁾

이러한 불안 요소를 통해 향후 기혼남성 출가교역자가 증가 현상과 교화 활동 등의 관계로 살펴볼 때, 현재 교단은 ‘정토-가정생활 및 자녀양육’ 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관계로서의 정의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와 정책 등이 미비한 상태다. 다만, 「전무출신규정」 「제4장 사가와의 관계」에서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전무출신 배우자로 정토회를 조직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 사업을 장려하며 관계된 전무출신의 공헌에 협조하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⁶¹⁾

또한, 정토회 사항은 「정토회규정」에 준하여 따르게 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교역자로서 「정무규칙」에 준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토라는 교단적 위치와 책무 그리고 이에 따른 교당과 교화 관계에서의 기혼남성 출가교역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 제도 및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용금과 출가교역자 생활

지난 원기 105년 출가교역자 의식조사에서 교단의 용금 및 급여의 결정 방법과 수준의 만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7> 용금·급여 관련 사항

번호	질 문	응답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교단에서 용금 및 급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족한다.	604	103 (17.1)	182 (30.1)	221 (36.6)	89 (14.7)	9 (1.5)
2	현재 나의 용금 및 급여 수준에 만족한다.	604	80 (13.2)	132 (21.9)	206 (34.1)	160 (26.5)	26 (4.3)
3	내가 받는 용금 및 급여는 나의 직무 수행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604	85 (14.1)	159 (26.3)	207 (34.3)	135 (22.4)	18 (3.0)
4	현재 기본 용금 외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만족한다.	604	86 (14.2)	151 (25.0)	206 (34.1)	139 (23.0)	22 (3.6)
5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04	77 (12.7)	68 (11.3)	169 (28.0)	226 (37.4)	64 (10.6)

용금·급여에 대한 결정 방법은 불만족 47.2%, 만족 16.2%을, 용금·급여와 직무수행적정 정도의 의사는 부정적 40.4%, 긍정적 25.4%, 현재 용금 및 급여 만족도는 불만족 35.1%, 만족은 30.8%, 기본 용금 외, 각종 수당들의 만족도는 불만족 39.2%, 만족 26.6%이었다.⁶²⁾ 이에 ‘출가교역자들 삶의 질

60) 오영진, 김영희, 「부모양육불안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래유아교육학』, 2021, 46~47쪽.

61) 「전무출신규정」 제4장 사가와의 관계, 제28: 제30조.

62) 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직무·생활만족도 및 이단치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 원기 106,

향상을 위해 교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있어 1)용금/처우(21.8%), 2)총무 인사(11.0%), 3)복지(10.7%), 4)근무/휴식(8.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적정 용금에 관한 액수에 대한 것은 '140만 원' 정도라고 응답했다.⁶³⁾

한편, 그동안 교단 용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방안 모색은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용금 문제 자체의 실제적 요구 사항에 관한 면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한 은행업체가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를 둔 40·50세대의 가구 지출 1순위는 '교육비'였고, 전체 소비의 1/4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⁶⁴⁾ 이를 볼 때, 향후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증가 현상에 따른 용금 문제의 요소 중, 가정양육비(사교육비) 등의 관련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502만원에서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 2천 원, 200~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 6천원이었으며, 학령에 따른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9만 8천 원, 중학생 44만 9천원, 고등학생 49만 1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실제 일반 가정의 양육비용은 더 높으며,⁶⁶⁾ 앞으로 미래세대 신혼가구의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사교육비 포함)는 140만 7천원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⁶⁷⁾ 2023년 아동부모인식조사 중 「아동의 필요성과 아동계획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한국리서치2023)에서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64%)',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61%)'를 꼽은 결과를 보였다.⁶⁸⁾ 이를 놓고 볼 때, 양육의 어려움은 곧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기혼남성 출가교역자의 자녀 중, 대학생을 제외한 초등~고등학교 교육비 부분만을 생각해 보면, 200~300만원 소득으로 가정하여, 1인당 학생 사교육비가 출가교역자의 기본용금(부가용금 및 상여금 등 제외)의 반절 이상에 해당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 1인, 고등학생 1인, 총 2인 기준의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40만원을 고정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1인 양육 전체 비용인 130만원 정도를 놓고 보면, 기혼남성 출가자가 기본 용금 외 생활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용금 전체가 자녀 1인 양육비로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부모 봉양 경우에 2016년 기준, 친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1명에 대한 월평균 지출이 35만원 이었으며,⁶⁹⁾ 2018년 기준 노인 평균 투병기간 6.1년 기준으로 비용이 평균 3천 200만원정도 측정되었다.⁷⁰⁾ 이는 결혼한 학령기의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외, 여성 출가교역자에게도

28~29쪽.

63) 원불교정책연구소, 앞의 책, 원기 106, 35~36쪽.

64) 신한은행,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 자료 참고.

65) 통계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023년 기준 https://www.index.go.kr/unify/idx_info.do?idxCd=4244

66) 자녀 1명을 키우는 데는 월평균 72만1 000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령기 자녀까지 모두 사교육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계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종서 외,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참고).

67)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 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0만 8천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이소영 외,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참고).

68) 한국리서치, 「2023년 아동 및 학부모 인식조사-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자녀 계획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 (<https://hrcopinion.co.kr/es/archives/26991>)

69) 김유경 외,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참고.

70) 삼성생명은퇴연구소, 『고령자 의료소비 실태 및 인식조사』, 2018 참고.

해당이 되는 부양비이다.

5) 세대 변화에 따른 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된 시기는 2001년 초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지침서」 발간 이후다. 그전까지는 중학교 1학년 가정 교과에서 월경주기법이나 피임 도구 등을 잠깐 언급했었다. 현재의 성교육은 성인지나 성의식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폐미니즘에 대해 사회생활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청소년 모두 거의 없는 편이나, 일부는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써 주로 ‘가족의 경제 활동’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 보다 모든 활동 기준으로 친구 수가 많고, 남녀 청소년 모두 동성 친구들이 더 많았다.

성인지감수성의 경우 젠더의식 함양, 성별화 지양, 성정체성 존중, 여성주의 사고 함양, 성적 지향 존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에는 성역할 분리 지양, 권력관계 지양, 사회적 통념 지양, 지배구조 지양, 사회적 위계 지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의 경우 성평등 고양, 혐오근절, 젠더폭력 근절, 성별불균형 타파, 젠더갈등 지양 순서이었으며, 인간존중의 경우 인권 존중, 다양성 존중, 행복추구, 상호 이해, 사회적 배제 지양 순, 민주시민의 경우 상호존중, 공동체 의식 함양, 시민권 존중,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통합 순으로 나타났다.⁷¹⁾

따라서 세대 변화에 따른 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미래세대들이 ‘교당’이라는 한 공간에서의 교역자간의 생활과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점에서 남·여성 출가교역자의 교역권은 남녀평등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종교 공간인 교당은 법당과 생활관 등이 한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어 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미래세대들에게는 여러 오해와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교당 공간에서 법당 등은 공적(교역)영역으로써 출가교역자간의 교역과 활동은 수용할 수 있으나, 생활관 등의 사적(사생활)영역까지 혼재된 구조에서는 교역자 개인 생활과 활동에 대한 불편 또는 불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요소를 지니고 있고 교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6) 교당에 대한 교역자의 인식

현 교당 구조에서 교역자의 생활면과 교화면의 인식을 살펴보자 한다. 먼저 선정 대상은 첫째, 교당 근무자로 2인이 살고 있어야 한다(3인 이상은 제외). 둘째, 교역자 생활이 동성이 아닌 이성이어야 한다. 셋째, 한 공간의 교역자 간에 나이나 근무 년수가 상호 10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총 8명을 선정하였고 개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해 자료를 수집했다.⁷²⁾ 기초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당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교

71) 심인선, 이해진, 박성애, 『경남 성평등교육 모델개발 기초연구』, 2019, 76~79쪽.

당 구조에서 생활관과 법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근무하는 교당 구조에서 교역자간 생활면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근무하는 교당 구조에서 교역자간 교화면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요?”, 기타로 “교당에서 생활관의 완전 분리(독립채 또는 별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역자의 출·퇴근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 체험 및 사례의 의미를 통해 그 중심으로 주제 정리를 했다.

먼저 교당 구조에 따른 유형을 A, B로 나눴다. ‘유형 A’는 별관 형식의 완전하게 교당과 생활관이 분리된 형태로 교당 부지 내, 외에 교역자 개인의 생활관이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다. ‘유형 B’는 불완전하게 교당과 생활관이 분리된 형태로, 교당 건물 안에 법당과 생활관이 있고 그 안에서 생활관이 층으로만 분리된 형태다.

이에 ‘유형 A’에서 연구 참여자 중, a, b는 본인이 교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는 교역자는 별관(생활관)에서 거주했다. c는 본인이 별관에서 거주를, 함께 근무하는 교역자가 교당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생활면과 교화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유형 A의 교역자 의식

유형A	교역자 개인의 생활관이 교당 부지 내, 외에 완전한 독립적 공간 존재	
	장점	단점
생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이 완전하게 보장 - 각자의 시간활용에 대해 이해함 - 통화, 외출 등에 대한 상호 간섭과 이동 노출이 잘 안됨(단, 출고반면만 하면 됨) - 교화 및 업무 외에 웃차림, 식사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받아야 할 스트레스가 적음 - 상호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인식됨 - 교당 부지 내, 교당내기관과 공간이 완전하게 나뉘어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음 - 개인공간의 완전한 확보로 교화에 소모된 에너지 충전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직자가 직장인처럼 보일까’라는 우려 - 아침저녁일과(좌선·염불) 참여를 위한 이동 불편
교화면	- 음식, 꽂꽃이, 법당 꾸미기 등을 여성교역자가 잘	

72) 2024년 5월 9~10일 개별 심층 면접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교단 근무자 중, 20인 이상·이성간 근무하는 교당의 자료를 토대로 면접자로부터 동의하에 녹음과 기록 등으로 전사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주제와 주제 군, 범주를 추출하였고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수록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성별	연령대	결혼유무	근무년수
a	남	30대	미혼	2년째
b	여	50대	미혼	22년째
c	남	50대	기혼	19년째
d	여	50대	미혼	26년째
e	남	50대	기혼	25년째
f	남	50대	기혼	19년째
g	여	40대	미혼	9년째
h	여	60대	미혼	32년째

	<p>하고, 도량 가꾸기, 관리 등은 남성교역자가 잘하기 때문에 특성이 나눠져 있어서 좋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성별만은 아니지만, 교당교화와 기관교화로 역할 분담이 좋음 	
--	--	--

결과를 보면 대체로 완전한 생활관 분리에 대한 교역자 생활은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완전한 생활 공간의 분리와 출·퇴근 형식의 인식 여부가 교역자 스스로 부자연스럽게 느끼거나 아침·저녁의 일과 참여에 이동 불편함이 약간 있었으나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는 등 생활면에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생활면이 곧 교화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월요일이 교무의 쉬는 날인데, 그 시간이 애매할 때가 많아서 생활 충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교화면에서 남녀역할별 담당에는 긍정적이었으며, 교화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의 기질 자체가 달라 교화에서 중요 사항이나 필요 사항에 대한 관심이 달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해 가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성과 동성간 교역자 문제보다는 같이 사는 교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생활관이 완전하게 분리된 교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당 구조에 대한 교역자 개인의 삶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생활관과 교당은 확실히 분리되면 좋다고 보았고, 전 교당이 이러한 구조 되면 좋으나 형편상(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출퇴근 방식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과가 진행하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일과 참여에 관한 부분은 교역자 간에 상호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조정과 이해로 인식이 정착된다면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유형 B’에서 연구 참여자 중, d, e, f, g, h는 모두 교당 내부에 생활관이 있고, 그 안에 각 생활관이 층으로만 나뉜 숙소 구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같은 층에 거주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은 없었다. 이를 통해 생활면과 교화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유형 A의 교역자 의식

유형B	교당 건물 안에 법당과 생활관이 있고 그 안에서 생활관이 층으로만 분리	
	장점	단점
생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간교역자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보니 생활이 편하게 느껴짐(언행등 주의심) - 남자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치안적·보안적으로 좋음 - 교역자 개인사생활 중요하다고 생각함 - 상호 이해와 소통으로 생활에 큰 불편없음 - 한 건물에서 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 못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건물에 있다보니, 같이 사는 교무님에게 언제 숙소로 들어가야 할지 말하기가 애매함 - 퇴근(일종료)시간이 애매함 - 기혼남성교역자 또는 남자교역자간 근무 할때는 가정사 등 일이 있을 때 이해를 잘하나, 이성간 교역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한 층에서 각 방으로만 나뉘어 있으면 불편함. 특히 화장실이 외부로 되어 있으면 신경 쓰임 - 잠은 별도 공간에서 자더라도 식사 등 특히 먹는 것 등의 기호 및 패턴이 달라서 함께 하기가 어려움

교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들에게 교당 일을 부탁할 경우, 남자교역자는 남자교도에게, 여자교역자는 여자교도에게 나눠서 편하게 언급함. - 사회적·대외적 교화는 남자교역자가 담당해줌 - 교화의 세밀한 것은 여자교역자가, 대체적인 것은 남자교역자가 담당함. - 상호 의견 공유 등으로 큰 불편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문제로 인해 남녀특성 문제로 까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교화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음
-----	---	---

결과를 보면 먼저 생활면은 한 건물에서 층으로 분리된 생활관 구조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상호 지켜야 할 생활과 연행 등에 주의가 생겨 존중하게 되고, 남자 교역자를 통해 치안적인 부분 등이 해결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여성 동성간 근무할 때는 옷차림 등의 간섭이나 참견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나, 이성간 근무 환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없어서 편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교역자 간의 개인사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건물에서 업무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다보니 업무와 개인 시간 확보의 모호함이 발생하고 있음을 불편으로 삼았다. 또한, 한 공간에서 소통 방식을 ‘식사’로써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남녀 특성상 기호가 달라 매 끼니를 함께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한끼 정도는 함께 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거주하고 있는 방에 화장실 등의 위생 관련 시설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교당에 대해서 생활 자체가 불편하다고 인식했다. 개인 가정사에 있어서도 이성간 이해 다름이 약간 발생하고 있었다.

교화면에서는 이성 교역자간의 특성에 맞게 교도들과의 관계 형성이 분담되어 있으며, 업무 역시 분담되어 교역에 임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다만, 이성간 자체 갈등 문제보다는 세대 차이 즉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남녀특성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생겨 이러한 점이 교화에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교역자간 세대 차이로 인해 서로 식사 기호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마치 남녀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질문에 대해 교당과 생활관의 공간 분리는 꼭 필요하며, 교역자의 개인 생활 역시 중요하면서 생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무의 날이 있다고 하나, 잘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생활관이 분리되면 좋을 것 같다고 보는 한편, 교역자 간에 사전의 일정을 조율하면 어느 정도 교화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공간 분리는 곧 재정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당 설계 때부터 또는 교도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출·퇴근이 때와 상황(가정사 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일과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수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과 먼거리에 있는 숙소 역시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교당관리차원에서 도량관리와 교도 맞이 등에 출·퇴근이 주는 인식은 교화의 부정적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교역자가 교당의 책임과 의미에 있어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7) 재가교도와 재가교역자 역할과 기능

그동안 교단은 재가교도 또는 재가교역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원기 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에서 재·출가에게 ‘재가교도 역할’에 대해 1) ‘출가교역자의 과다한 업무 완화, 부족한 출가 인력의 보완을 위해 재가교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에 재

가 82.4%, 출가 82.6%를, 2) ‘출가는 교화권 중심으로, 재가는 교당 운영관리권 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에 재가 63.3%, 출가 68.8%를, 3) ‘현재 부교무 역할(업무)도 재가교역자에게 점차 이양하는 것 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에 재가 56.2%, 출가 74.3%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인구감소·저출산·탈종교화 등 사회적 환경에서 출가교역자 인력 감소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교단 운영의 한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한계는 교당에서 출가교역자 중심의 영역에 따른 역할이 너무 많아 교회에 필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사항 속에 제대로 된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 이에 지난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의 기반과제 중, ‘1. 재가·출가인력양성’ 부분을 강조했으나 그 평가를 보더라도 과제 이행이 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의제 중, 재가교도들이 뽑은 10대 과제에서 ‘전무출신 종합관리’와 ‘출가교역자 역량강화’가 1, 3위으로 선정⁷³⁾된 것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표10> 교단 제3대 제3회 3기 종합계획 평가(원기 103~105)>⁷⁴⁾

실천과제명	세부과제명	목표달성지표	관련부서	평가결과			
				목표 달성지표 점수	세부과제 점수	실천 과제	기반 과제
1-2. 재가인 재 양성	1) 재가교역자 역할 전문화	①재가 교역자 수급계획 마련	총무	0	E(14.0) 2기:B(80.0) 1기:D(60)	E (50.8)	D (67.0)
		②재가교역자 역할 매뉴 얼 정비 여부	총무	0			
		③출·재가 인력수급팀 운 영 여부	기획	0			
		④출가 젊은 인재 양성	기획	70.0			
	2) 재가교역자 양성 교육실시	①재가청소년교화자 양성 현황	교화	100	S(100) 2기:C(75) 1기:D(60)	2기: D(64.4)	2기: D(66.0)
		②재가교역자 양성 교육 방법	총무	0			
	3) 재가연구 인 력 육성	①재가 전문 인력 조사물	총무	0	E(38.4)	1기 : D	1기:C
		②전심회 재가인력 현황	교화	76.7	2기:E(38.3) 1기:E(0)		

이에 교회와 재가교역자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교역자 역할과 기능에 관한 양성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교당의 조직은 의결기구인 교당교의회와 집행기구인 교화협의회, 그리고 각 분과(교화기획·청소년·총무·재무관리·봉공)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 중, 각 분과와 재가교역자의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과」

- 교화기획분과 :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홍보, 순교, 연구기획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분과 : 청소년어린이의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등에 관한 사항.
- 총무분과 : 회의, 서무, 감사, 대외업무 및 타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재무관리분과 : 예·결산주관, 재정, 교산운영, 건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73) 원불교 정책연구소, 『원기 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2017, 19쪽.

74) 교정원 기획실, 『교단 제3대 제3회 종합계획 평가보고서』, 2021, 25~26쪽.

5. 봉공분과 : 대내외 봉공활동, 교도친목과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직무」

1. 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원무는 원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활동한다.
4. 단장은 교무보좌, 교화단관리 및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교화조력, 교화단늘리기, 의식보급과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5.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6. 주무는 교당의 유지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담당한다.
7. 순교는 교화보조, 교도순방, 의식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재가교역자의 권한은 교당교의회의 의결로 교화, 훈련, 예산, 결산, 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교화협의회의 의결에서는 교화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월별 실천계획·교화결산과 재무 시산 등⁷⁵⁾이 주어진다. 또한, 10인 1단의 교화단과 지역·단체·직장장을 두어 소속된 곳에서 교화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그러나 현재 교단은 이에 해당한 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단장·중앙 등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교당별 또는 지구·교구차원에서 보통 년 1~2회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기간으로만 훈련의 질에 대한 평가를 논할 수는 없으나, 교당교화와 연계된 분과와 직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그 연계성과 체계성을 지닌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 교도들에게 있어 재가교역자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 및 인식을 불명확하게 자리잡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가교역자의 교화권과 교역영역에 대한 재논의 및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재가교역자의 교화 참여 및 확대에 대한 실행을 하더라도 현재 재가교역자가 교화의 ‘보조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화의 주체 차원에서의 더 명확한 제도적 점검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각 성당에서 ‘사목위원회협의회’ 담당 제반 사항을 세밀하게 나누고 심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데 남·여성 평신도의 역할, 각 분과에 관한 것 등을 교구에서 본당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는 교구 사목교서의 지침에 바탕하고 「본당 사목협의회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규정」에 적용하여 매년 사목계획서를 작성해 본당교육과 회의로 공유해야 한다. 천주교는 2001년 평신도사도 직단체협의회 개편을 시작으로 사목위원회 양성교육에 총력을 이끌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다음은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중심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당교화의 주축인 여성 교도 및 여성 재가교역자에 대한 교화 활동의 대응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리서치, 「2023년 종교인식 조사」(총 응답자 22,000명)⁷⁷⁾ 중,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50%내외 수준으로 60세 이상은 36%, 50대 49%, 40대 55%, 30대 62%, 18~29세 69%로 높게 나왔다. 반면에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응답에 있어 전체 남성 중 46%, 여성은 53%로 여성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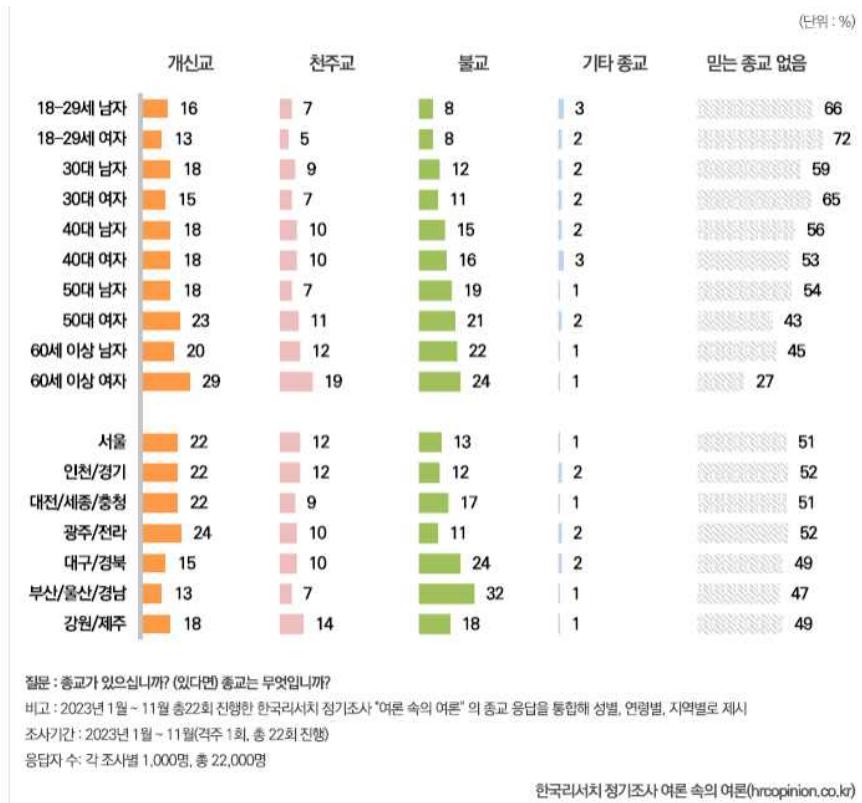
75) 「교당규정」제6장 회의 제31조 교당교의회, 제32조 교화협의회

76) 「교당규정」제5장 제24조 교화단, 제25조 지역단체직장장

77) <https://hrcopinion.co.kr/archives/28464>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무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종교인 연령 비율>



이처럼 여전히 한국사회의 종교인 구성이 여성 중심이듯, 교당의 교회 역시 여성 출가교역자와 교도 및 재가교역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교당에서 기혼남성 출가교역자가 증가한 가운데 — 교당 직무 구성인 중 회장단을 제외하더라도 — 재가교도 교화의 중심인 단장·중앙 등의 활동이 기존 여성 출가교역자와의 관계 속에 진행된 것보다는 소극적이며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여성 출가교역자 중심으로 순교나 상담 등은 일대일 대면을 하거나 재가교역자를 대동한 교도 가정방문 및 교당 접견 시, 상호인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교당의 교도가 주로 여성이고 재가교역자 역시 여성인 주로 교당 보조로써 그 직임을 했기 때문에 교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혼남성 출가교역자 중심의 변화로 인한 순교나 상담 및 지도 방식의 기존 교화 패턴, 예를 들어 개인 가족문제나 부부관계 등의 개인적 문제를 — 이성 사이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 잘 적용되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럽고 소극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결혼한 남자 성직자가 있는 개신교를 살펴보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목회자와 여성신도의

관계에서 목회상담과 심방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원 :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랜 성적인 도착·중독·습관이 계속된 채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목사들에게 접근하는 여성도 있다. 목사를 처음에는 영적인 지도자로 좋아하고 존경하다가 감정이 발전해서 접근하는 여성은 순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도 가능하다.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목회자가 탈진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일을 하다가 탈진되었을 때, 인간 본능에 따라 다른 세계와 해방의 출구를 찾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고○한 : 목회자 역할과 관련하여, 심방과 상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과거 있던 교회에서 1년 정도 심방을 한 일이 있다. 그 교회의 경우 목회자 혼자서 심방을 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집은 과천인데 심방을 일산까지 가야 하니 빨리 가거나 늦게 가야 했다. 빨리 가면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렸다. 어떤 때는 아파트 앞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기도 했다. 또 학편으로는 사전에 물론 전화는 하지만 '남편은 나갔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늦은 오후 심방하며 '남편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목회자가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역할에서 오는 취약한 지대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밀감이 생기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를 열어 보이게 되고 아무래도 외딴 곳에서 하기 쉽다. 그런 부분이 주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직업에서 생기는 원천적인 유혹인 것이다. 미국 IVF의 종재 고든 맥도날드는 굉장히 존경받는 크리스천 리더였다. 그런 그가 옛날 비서와 상담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 목사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⁷⁸⁾

셋째, 교당교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정수준 또는 최소단위의 파악이 어렵다. 예를 들어 교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과 적정 인원은 몇 명인지, 교화단 구성 수는 몇 단으로 해야 하는지, 주임교무 1인이 관리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등 '조직 관리'에 관한 대체 사항 또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는 지교회의 설립 조건으로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의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⁷⁹⁾고 되어 있고, 이는 폐지에도 기준이 된다. 당회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⁰⁾

78) 「목회자가와 전문가가 보는 목회자와 성」, 뉴스조이, 2010년 9월 19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2>)

79)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80) 지교회는 조직교화와 미조직 교회로 나뉜다. 조직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존재하여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미조직 교회는 목사가 없고 장로만 있는 교회를 말한다. 이는 당회를 통한 치리권의 유무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목사가 없더라도 지교회의 설립 조건이 되어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당회 조건이 형성되면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표 1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본구조⁸¹⁾

단위	구성	구성 단위	직무
당회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음. 장로 증원은 세례교인 (입교인) 30명 비례로 1인씩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집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 ②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할 때는 즉시 발송한 당화에 접수 통지 ③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 ④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 ⑤각종 현금을 수집할 방안 협의, 실시, 재정 감독 ⑥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선정, 교회 상황을 보고, 청원권을 제출 ⑦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 ⑧개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리
노회	일정한 구역(또는 지역) 안에 사무복사 30인 이상, 당회 30곳, 세례교인(입교인) 3,000명 이상일 때 조직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구비됨 ②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됨 ③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 	총대 장로 파송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교인(입교인) 100명당, 1인 -세례교인 101명~200명당, 2인 -세례교인 201명~500명당, 3인 -세례교인 501명~1,000명당, 4인 -세례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괄 ②각 당회에서 제출한 협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 ③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심판, 소송, 상소, 위탁판결 및 직할판결에 관한 사항 처리 ④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 해석 답변 ⑤신학생 및 졸업생을 관리,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 처리 ⑥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협력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 ⑦개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여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 지도 ⑧본 노회에서 출회에 제출하는 청원, 협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 지시 실행 ⑨소속 개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총회	각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	-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 나머지는 세례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소속 각 당회 및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괄 ②하급 당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협의, 청원, 행정심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 ③각 노회록을 검사 ④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해석의 전권 ⑤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합 ⑥목사 자격 고시,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 교회 분열 쟁론을 진압, 성결의 떡을 세우기 위한 힘을 쓴 ⑦신학대학을 설립, 경영, 관리, 교역자 양성 ⑧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계획 실천 ⑨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

81) 원불교 정책연구소, 『한국의 이웃종교 요약보고서』, 2022, 70~71쪽.

IV. 제언 및 나오는 말

지금까지 교당의 역할은 일원상이 봉안된 대각전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원불교 교도를 위주로 행해지는 다양한 만남과 행사, 통과 의례적인 예법을 의식으로 진행하여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마음을 단련하고 적공하는 훈련 도량이었다. 또한 대체로 교무가 주재하며 교무의 생활관과 의식이 이뤄지는 대각전, 교도들의 활동(교화단, 봉공회 등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복합적인 공간의 형태였다. 그러나 교당은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어야 진정한 OPEN이 될 수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교무가 상주하는 교당, 혹은 교무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는 한, 남의 집에 방문하는 심경으로 형식과 예를 갖추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며, 교당을 복합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열린 교당, 열린 교화의 개척에 대한 초보는 힘들지 않을까? 이 터부를 깰 수 있는 4대1회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교도든 교도가 아니든 교당에 방문했을 때 대상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도록 평상시 삶을 점검하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훈련 형태의 법회(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의 점검이 이뤄지는)가 이뤄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화자의 마인드를 오픈해야 한다. 또한 어떤 누구라도 접근 용이한 교당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의 한정을 지우지 않아야 진정한 내적·외적의 OPEN이 될 수 있다.

대종사님 당대의 교화는 이미 OPEN을 넘어선 온 인류, 전 세계에 은혜 전달할 포부와 경륜이 담겨 있었다. 대종사님의 원대한 정신을 회복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크게 전환하려는 뜻을 담아 물리적·시공간을 넘어선 열린 교당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부터 활발해졌던 온라인 상의 활동 등을 담아내는 것은 기본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되고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장소는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삶과 경험, 애착이 녹아든 곳일수록 더 다양한 의미의 반향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를 찾는 것은 ‘이곳이 나의 장소’라는 확신과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교당’이라는 장소 역시 누구나 방문하면 그곳이 나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교당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단에서 정의 내려진 ‘교당’의 의미와 역할에 더해, 종교학자들이 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지지와 위로와 화해를 해주며, 일체화를 위한 정서적 기초를 마련해 주며, 합법화와 해체화 등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할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1. 교화 활동의 전환과 변화

가. 교화활동의 다변화와 대중화 주력

급변화는 사회현상에 따른 교화환경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종교적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종교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세대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디지털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정책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교당내 교화 활동의 변화와 교화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교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교당 공간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주 1회 법회를 보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교당을

효율적이면서 사실적인 대중교화의 장으로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도수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화의 주요 기반이었던 교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교법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화 활동의 장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고민해 봄야 한다.

요즘 많은 종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역기능 문제와 주 1회 남짓 사용하는 종교시설들에 대한 공간 활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교회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이웃 종교들이 늘고 있다. 실제 가톨릭에서는 지역사회에 성당을 비롯한 교회시설을 개방하여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개방은 규모나 시설 등에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일부 본당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어려운 본당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 선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세상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이 의식 수준, 또는 성전으로서의 특수성 등과 관련 교회시설의 무조건적 개방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오랜 시간 꾸준히 개방하면서 단순한 개방이 아닌 다양하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교회시설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⁸²⁾ 우리도 교단 4대에는 열린 교당으로 전환을 계획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인 교당의 문부터 열고 열린교화의 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고 누구나 찾아와 즐기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 봄야 한다.

둘째는 법회 형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회는 상시 중 정기훈련의 시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 훈련을 통한 공부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회를 통해 상시에 공부하며 얻은 감각과 감상에 대한 문답, 감정, 해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중심의 법회 식순의 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법회 출석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법회를 통해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교단 제3대 3회 설계에 100년 성업 교화 대불공의 핵심과제로 ‘법회의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중심의 법회운영 모델 창출 및 확산, 법회를 통한 상시훈련의 체질화, 신앙성 고취를 위한 법회의식 창출이 그것이다.⁸³⁾ 현재 원불교 법회의식이라 통칭하는 원불교 중요의식의 형성에 대한 과정을 살펴서 그 본의를 살리고 기능이 살아나야 법회가 형식적인 출석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 성업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원불교 법회의식 형성 및 변천과정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 대각 후 범현동 이씨제각에서 ‘최초법어’를 발표함과 동시에 첫 법회가 시작 된 것으로 본다. 원기 2년 남자수위단이 조단되면서 삼순일 예회로 정립, 불법연구회 전 기간을 걸쳐 ‘정례회합’으로 예회가 모든 의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원기 9년에 예회가 공식화되었고, 원기 12년 3월 『불법연구회규약』에 설법예식이 소태산 대종사의 설법중심으로 편성됐고, 원기 13년 월말통신 2호 ‘삼례회록’을 보면 오전에는 월예회로, 오후에는 단원회로 분개해 법회와 단회가 병행된 사례도 볼 수 있고, 원기 13년 하계기념일에 소태산 대종사는 문답과 함께 법을 설했고, 원기 14년부터는 ‘경의문답’ ‘법의문답’이란 명칭으로 법회식순에 자리했다. 원기 15년에 ‘교리법강의 낭독(법어봉독)’이 포함된다. 그리고 강연 후 연사에게 질의문답 하게 하고, 그 후 소태산 대종사의 보설이 있었다. 교회단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오늘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매월 초 6일 오후에는 ‘문답예일’로 하고, 16일 오후 단회에는 ‘의견안 제출예일’로 하고, 26일 오후에는 ‘의견심의 예일’로 하여 매 예회일

82) 『카톨릭신문』 2020.08.26.일(1665호),<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008260238493>

83) 원불교 교정원 기획실, 『교단 제3대 3회 설계보고서』, 2012.

오후에 각각 단 활동이 강화되었다. 원기 19년 삼순일 예회의 원칙에서 ‘도회지의 회당의 경우는 종법사의 인가를 얻어 매월 일요일 개최도 가능’하다고 해 일요예회가 공식화 됐다. 이러한 변천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초기 월례회를 중심으로 한 정례회합의 성격에서 법의 모임인 법회를 중심으로 변화됐고, 모든 의식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됐으며, 신앙과 수행의 통일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법회의식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⁸⁴⁾

우리는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법회의 형성과정에서 ‘정례회합’이란 모임으로 시작한 법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 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 철저히 법 훈련의 장이었으며, 공부 점검의 장이었으며, 교단사 참여의 장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참고하여 본래 법회의 취지와 역할을 회복하고, 현재 법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기본에 충실한 법회로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디지털 기반 전문 교화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교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코로나 시기에 종교활동 인구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종교활동 참여자수는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종교가 맞은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가 더 촉진 시킨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시대 사회적 흐름이라 봐야 할 것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 때 종교인구 비율이 2005년 이후 18%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체인구 절반이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가 줄어들었고, 실제 2000년대 이후 모든 종교의 이탈자가 늘었고 활동참여도 줄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주의가 성향이 강해졌고, 유럽을 비롯한 서구는 이미 ‘탈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 종교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심각함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그러한 변화를 크게 실감하게 될 것이라 본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그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디지털 기반 전문 교화 공간을 구축하자고 하고 싶다. 교도들에게는 법의 훈련과 교회활동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디지털로 옮겨옳은 공간이면서 비교도들은 누구 가 쉽고 편하게 접근하여 법을 우리의 교법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 교당마다 병행하여 운영하는 SNS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단에 하나쯤은 디지털 기반 교당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디지털 교당 구축까지는 멀었다하더라도 교도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통계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법회 참석만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온라인 교회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요구가 커져가는 시기에 오프라인 법회출석만을 고수한다면 점점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아마도 온라인 교회활동이 가져오게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의견도 분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시도해볼 만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을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디지털 기반 교당이 생긴다면 교도 뿐만 아니라 비교도들의 접근기회를 늘릴 수 있다. 종교는 아니지만 영성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듯, 종교의 가르침이 좋다면 누구든지 접속할수 있고 변화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앞으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대표되는 종교 공간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유럽의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음악당처럼 되었고, 미사와 예배를 볼 때는 안이 텅텅 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제도화된 종교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본래 제도나 조직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목마름, 사람들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겨났다. 그게 영성이다. 예수도 그랬고, 봇다도 그랬다. 영성을 중심에 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교에서 ‘영성’이 빠져버렸다. 그 자리를 종교의 제도와 조직이 대신했다. 독일 철학자

84) 고원국·장진수, ‘원불교 법회의식 형성 및 변천과정’ 『원기97년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자료집』, 2012.

니체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며 이를 비판했다.⁸⁵⁾ 시대 변화와 함께 세대별, 계층 별로 다양화되는 종교적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교회 방법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나. 교회단의 정체성 회복과 훈련의 생활화

교회단과 훈련은 탈종교시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촉진된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주의 사회에서 더욱 회복해야 할 우리 교화의 핵심이다. 원불교 교화 활동의 대표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서 법회와 함께 교회단과 훈련도 점검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단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초기부터 현재의 교회단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교회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지금까지 해온 교회단이 있는데 또 무슨 교회단이냐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시행해온 교회단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교화가 잘 되었고 제대로 된 교회단 운영이었느냐고 질문한다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끊임없이 교회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고민해왔고 나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창립 2대 말을 향한 교정 공식 보고서에서 교화정책 방향에서 교회단 활용에 대하여 “교당 조직에 있어서 다양한 조직을 탈피하고 모든 행사와 운영은 교회단을 활용한다. 교도들이 다양한 조직에 모두 참여하게 될 때 시간과 경제의 저해 요인이 된다”라는 내용과 “이단치교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⁸⁶⁾ 그리고 3대 3회 설계보고서에서도 교회단 중심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단 중심의 교화제제 정착이 필요하고, 이에 교단 초기 교회단의 원형과 정신을 회복하여 대종사님께서 추구하신 교회단법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⁸⁷⁾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회단으로 형성되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단 운영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전부 바꾸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고 사실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전문연구를 토대로 교회단 재정비를 하여 교화 활성화와 교회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부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화의 중심조직으로서 상시훈련 실행 점검의 기능이 살아나는 운영 시스템,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활동의 중심체인 교회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연구를 토대로 구축된 교회단 정신과 그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단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운영체계(시스템)를 구축하여 시행하자.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에 우려가 된다면 시범교당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해가며 교단 전체로 확산해 가자.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교화조직’으로서 교회단의 기능과 역할이 살아나도록 해야한다. 앞서 현실진단에서 언급했지만 현재의 교회단은 교도관리 목적의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단 활동은 『교회단마음공부』 교재를 활용하여 한달에 한번 교회단 법회를 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며, 가끔 친목을 목적으로 단별로 모임을 하는 정도이다. 자연 교회단을 통한 훈련은 어렵고 나의 변화는 물론 파란고해의 일체

85) 『중앙일보』 2020년 4월 29일자, 「백성호의 현문우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5642#home>

86) 『창립 2대말을 향한 교정 각 부분별 공식 보고서』 원기 67, 51쪽.

87) 원불교 교정원 기획실, 『교단 제3대 3회 설계보고서』, 2012, 41쪽.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상시훈련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교회단의 역할이 살아나고 교회단의 기능이 살아남으로써 상시훈련의 의 바탕이 되는 유기적인 구조가 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교회단 관련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자. 우리에게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 교회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교회단이다. 그렇게 중요할진대 교회단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종합창구가 없다는 것은 요즘 같은 디지털 기반 시대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독립적이면서도 자율적인 교회단 활동과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접근해서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교회단이 갖는 교단내 비중을 생각하면 이런 전문적인 사이트 하나 정도는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급변하는 사회에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의 운영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단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활동들이 요즘 시대에 부흥하는 조직일 수 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회에서 소그룹은 크게 2가지로 구역·셀·속회·다락방·가정교회 등 신앙나눔을 중심으로 한 ‘신앙소그룹’과 독서·운동·등산 등 ‘취향소그룹’이 있는데⁸⁸⁾, 여기에서 소그룹의 개념은 우리의 교회단으로 볼 수 있다. 교회단은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원들의 공부와 친목을 함께 도모하는 원불교만의 특별한 교회조직이다. 이웃종교의 사례에 대한 동경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나 조직을 본의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교단 제4대 제1회를 시작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어 가는 교법정신의 회복에 힘써보자는 취지를 담아 설계를 구성하였다. 그 교법정신 회복에 ‘교회단으로 상시훈련 정착’이라는 세부 과제를 정함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이미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빛나게 활용해보자는 뜻이 있다.

전체적으로 교화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차적으로 교헌 및 규정에 나타나있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내용인지, 꼭 필요하다면 실행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어도 헌규에 나타난 대로 현실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화는 원불교에 입교시켜 교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교법을 통해 훈련시켜 행복한 낙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교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2. 교역자 삶 공간의 제공과 지원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인간의 행위는 특별한 장소와 관련되어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그 장소는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점이며, 출발이다”⁸⁹⁾라고 했다. 교단의 정체성은 곧 ‘교당’이라는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교당을 ‘공동체’라는 명목 아래,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는 상태로 일치화된 인식과 의식으로 개념한 공간으로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별하는 공간이 아닌 차별화된 공간으로, 분리와 적정의 공간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간으로써 그 ‘주체자’, 즉 교역자를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8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실태 조사」, 『넘버즈』194, 2023.

89)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19쪽.

가. 안정된 삶을 위한 공간

앞서 언급했듯이, 기혼남성 출가교역자의 증가로 인한 조직구성 변화에 따라 교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출가교역자 삶에서의 공간구조를 통한 안정과 지원이다. 물론 기혼남성 출가교역자가 증가 현상을 문제 정의를 언급했으나, 남녀 출가교역자의 가정·가족 안정을 통해 ‘교화효능감’을 증대하여 적극적인 교화 활동의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공동체 또는 공동생활에 관한 의미의 재고로써 그 개념과 표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마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무출신규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생활의무)

① 전무출신은 정신일체와 생활일체를 위하여 당해 기관·교당에서 공동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가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 사가의 책임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족 대동

① 전무출신이 교직 수행의 필요에 따라 가족을 도량 안에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③ 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급료를 주거나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가교역자 삶의 사생활 보장이나 가족 돌봄을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법상 제시된 사항 중, 공동생활의 개념은 직접적인 ‘교역(또는 교화) 활동’의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시간은 개인 생활 또는 사적 생활로써 분리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이에 그 공간 역시 완전한 분리를 만들고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교당규정」 중, ‘교당설립 및 시설’에 ‘교당은 생활공간과 교화공간(집무실 포함)을 가급적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은 남녀 생활에 각각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불교의 교당은 주로 한 건축물 안에 교화공간과 생활공간이 존속되어 있어 완전한 분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성당과 사제관, 개신교의 목회자 교회와 사택 등은 완전한 교역 공간과 사생활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공동체는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인 동시에, 이는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해 준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개념은 가치나 이념으로서 윤리관과 규범적 담론, 규범적 사회과학의 서술적 범주 또는 변수, 미시 수준의 어떤 기초적 실체로 명명하며, 이에 지리적 영역을 기반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하나의 공통된 끈(tie), 이 세 요소로 축약하기도 한다.⁹⁰⁾

즉, ‘교당’이라는 한 공간에서 교역자 간의 24시간 상주하는 생활 즉, 공동생활(=전무출신 삶)만이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인식 속에 사생활공간이 모호하게 존립해 있는 현 교당 구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

90) 김미영,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형식」, 『사회와 이론』27, 2015, 185~186쪽.

하다. 불법연구회 당시, 중앙총부에서 전 교역자가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대각전과 여러 선진들의 가택이 완전하게 나눠져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을 통한 교역자 생활 중, ‘통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과연 ‘공간점유’로써 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물을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교당의 공간이 주는 성별·세대별 갈등에 대한 여러 요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역 영역과 사생활 영역의 제공 공간과 이에 부여되는 개념이 정립된다면 ‘교당’과 ‘관사(사택)’ 형식의 분리공간 형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⁹¹⁾ 교당을 통해 교역 영역을 확고히 하고 관사를 통한 사생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출가교역자의 가족부양 또는 돌봄 등, 사가에서 가장의 위치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거의 근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대도시 권역별 등 지역 교회에 임하고 있는 출가교역자들에게 가정사를 뒷받침해줄 방안까지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공적 시스템에 의해 자녀학령기 양육비나 가족 부양비(치료비) 등을 일시적이라도 지원 가능 방안까지 연계해 볼 수 있다.⁹²⁾ 지난 2023년 한국기독교에서 목회자의 인식 조사 보면, 목회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5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다음세대 교육 문제’를, 5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의 어려움’으로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에 영적 도움을 주는 대상은 ‘배우자(사모)/가족’을 가장 높게 꼽은 점을 살펴보면⁹³⁾ 결국, 교역자 삶에서도 ‘경제·교육(양육)·가족(봉양)등’이 크게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적지원책 준비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써 ‘출가교역자 종합관리 시스템’ 연구와 정책 실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한국 천주교의 서울대교구에서는 ‘사제를 위한 사제’라는 뜻을 지닌 ‘꾸라또르(Curator)’를 만들어 사제가 사제를 보살필 수 있는 직책을 만들었다. 이는 사제를 위한 복지, 돌봄, 교육 등의 종합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종체적으로 다루는 성직자 전문부서⁹⁴⁾로 교단 역시 이러한 교역자 관리 시스템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 교화 역할과 역량의 공간

교당교화와 운영에 출가교역자의 역할만으로는 교당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재가교역자는 단순히 교화적 피주체가 아니라 교당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출가교역자가 교당 교화에 있어 교도 관리, 행정 업무, 기타 의식 업무 등이 과부화된 책임과 임무로 그 한계가 도출되고 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재가교역자 임명과 활동의 권한에 대한 내적 역학 관계 – 수직적 구조화로 인한 소극적, 비활성화가 교화 성장을 크게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단 제3대 제3회의 재가교역자 양성 정책 시행의 미비한 점에 대해 재고찰하여 제4대

91) 전무출신 주택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불교 정토회관 근처 인우빌라 1·2동이 마련되어 익산 근교 교역자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92) 현재 정토회관에서는 대학생 학비 지원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고등학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부양 지원 역시, 일정 부분 교단의 공적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93)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대한기독교서회, 2023, 552쪽; 596쪽.

94) 『카톨릭신문』 2022년 8월 23일자, 「서울대교구, 사제를 돌보고 기도전념하는 교구장 특임사제 신설」.

제1회 설계에서는 이를 위한 현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성 교육의 기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목표	핵심의제	실천과제	세부추진 내용
I 교법 정신 회복	1. 정기훈련의 내 실화	1-1 훈련정책 수립과 훈련기관 재정비 및 특성화	1-1-1 훈련기관 재정비 및 기반 구축 1) 도시형 훈련원 체제 마련 2) 지역 및 권역별 훈련원의 특성화 3) 재가교역자 전담훈련원 설치 4) 훈련기관 지원 사업 5) 훈련기관의 대관 및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3.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3-2 재가교역자 양성 교육의 체계화	3-2-1 훈련기관 재정비 및 기반 구축 1) 재가교역자 제도 정비(법제마련) 2) 인재발굴 지원체계 구축 3) 교육체제 및 과정 평가 3-2-2 재가교역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개설 1) 육영 교육기관 연계 2)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3) 역할 확대를 위한 연계 체제 활성화 3-2-3 재가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2) 단계별, 대상별 필수 교과목 선정 및 운영 3)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먼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현재 재가교역자의 활동 상황에 중요한 것은 직무교육과 교화 지침서(교재)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관 또는 훈련원—(출·재가)교육요원이다. 교재-시설-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집중 전담 및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가 중앙과 각 교구에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구성해야 하는가. 재가교역자 교육 체재를 교화와 직무라는 두 트랙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단장중심의 교회단 교육과 함께 교당규정 중 재가교역자 역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식, 회계, 교당 관리, 교화, 기획, 등’에 대한 각 분과와 직무에 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교화가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알리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면, 이에 대한 자원과 권한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교화에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원불교의 행정, 즉 ‘교정(教政)’은 ‘조직행정·인사행정·재무행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⁹⁵⁾ 이러한 점이 교당체계에 필요한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천주교 경우, 2015년 수원교구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단체별·위원회별 『본당 봉사자 직무 편람』을 시작으로 『사목위원 양성 교재』, 『본당 교육 봉사자 양성교재』, 『본당 선교사 양성 교재』를 발간하고 교구내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⁹⁶⁾ 본당 사목과 행정을 위한 교육체계로 되어 있다. 특히 평신도양성자 모임 역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⁹⁷⁾ 설립 및 활동으로써 각 교구 사목 지침서에 의한 본당 사목계획 수립 등의 모든 과정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

95)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대사전』, 2013.

96) 『『본당 봉사자 직무 편람』』을 펴내고, 『사목정보』, 2015, 70~74쪽.

9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1965년 11월 제정 반포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의 정신에 따라 1968년 7월 창립총회와 함께 발족된 평신도들의 협의체

과정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개신교 역시 총회신학원(대) 중심으로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회행정학’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교재뿐만 아니라 실습 등 각종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교회가 목회(전도)와 행정을 수행해 가는 데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교회 행정사 자격증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총회-노회-당회가 신도들이 직접 사역에 일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역지침」에 따른 활동 정의, 임무, 설명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임하며, 특히 사항이 있을 때는 세미나 등을 통해 조정해 간다.⁹⁸⁾

이를 보면 교단도 지난 원기 81년(1996), 교정원 교화훈련부에서 발간했던 『재가교역자 교육 교재』(김일상, 오도철)이 있다. 그 구성은 재가교역자 교육의 의의, 자세, 직무와 역할, 생활, 교당·교당교의 회·교화단·봉공회의 운영, 의식집례 등으로 천주교나 개신교의 평신도 교육 체계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벼전업과 활용 그리고 공유 및 확산이 되지 않았다. 지난 원기 96년 2만단장 훈련을 위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화와 행정에 대한 구조화·조직화·체계화·지속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재가교역자 중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정토’의 역할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무는 1) 교당의 교화보조, 2) 교화의례상 필요할 때 교복과 법락을 착용하고 주례자 보좌, 3) 청소년 법회 주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토회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두고, 교육진행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정토회 교감(주임)교무가 지어 정무 교육 및 자격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⁹⁹⁾ 그러나 현재까지 정토는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과 자녀 양육에만 임하여 교화의 기여나 기타 교단 활동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종교인이 많은 가운데, 교단도 여성 교도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에 결혼한 남성 출가자가 교화 현장을 차지하게 될 경우, 여성교도에 적용했던 교화 방식의 대체로써 정토의 교화 참여를 고려해 볼만 한다. 특히 향후 가정교화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 여성과 가정의 교화 매개체에 대한 가교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신교의 목사와 사모 체제의 목회 활동과 같이 정토도 교화 현장에서 교역과 생활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개신교에서 사모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교회의 예배와 행사참여, 성도관리, 새신자 교육, 여성제자 훈련, 상담, 심방 등과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교회내 각 계층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행정가’¹⁰⁰⁾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정토가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단이 공적 차원에서 가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단이 「정무규정」 제11조 ‘전무출신 준하는 ’용금을 지급하는 것‘ 주거 지원으로써 관사 제공 및 교육비 지원 등을 강구해 준다면 교화 현장에서 기혼남성 출가교역자와 정토가 교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 형성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해 재가교역자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의 역할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공식적인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출가교역자 인재난과 교화 현장의 업무 한계 등에서 재가교역자에 대한 임명규정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한 인사임명의 진단과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권한의 제도 점검도 필요하다.

98) 총회한국교회연구원, 「미래교회와 교회행정(사역지침서)」『2020 미래교회와 미래교회』, 2020 참고.

99) 「정무규칙」 제10조 역할, 제6조 교육

100) 장미선, 「한국 목회자사모의 역할 분석과 목회행정가 양성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2쪽.

참고문헌

1. 자료

『월보』『정전』『대산종사법어』『원불교 교현』『원불교교사』『원불교대사전』『원불교신문』『카톨릭 신문』『법보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총회헌법』
「공익복지부 자료」, 「총무부 자료」

2. 단행본

교화연구소, 『교화지침서』, 원불교 교정원 교화부, 1991.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실태 조사', 「넘버즈」 194호, 2023.

미래사목연구소, 『사목정보』10, 2015.

삼성생명은퇴연구소, 『고령자 의료소비 실태 및 인식조사』, 2018

신한은행,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

원불교 교정원 기획실, 『창립 2대말을 향한 교정 각 부분별 공식 보고서』, 1982.

, 『교단 제3대 3회 설계보고서』, 2008.

, 『교단 제3대 제3회 종합계획 평가보고서』, 2021

원불교 정책연구소, 『원기 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2017

, 『원기105년 출가교역자직무·생활만족도 및 이단치교에 관한 의식조사보고서』, 2021.

, 『한국의 이웃종교 요약보고서』, 2022.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종교현황', 2021.

한국리서치, 「2023년 아동 및 학부모 인식조사–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자녀 계획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 2023.

, 「여론속의 여론」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2023.

3. 논문

고원국·장진수, 「원불교 법회의식 형성 및 변천과정」, 『원기 97년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자료집』 2012.

김미영,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형식」, 『사회와 이론』27, 2015.

김반디, 「원불교 정토의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제42회 원불교사상연 학술대회, 2024

김유경 외,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박종서 외,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백준흠, 「이단치교 구현을 위한 제언」,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2

송천은, 「원불교 교화의 방향」, 『원불교사상』16, 1990.

심인선, 이해진, 박성애, 『경남 성평등교육 모델개발 기초연구』, 2019.

오영진, 김영희, 「부모양육불안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래유아교육학』, 2021

이소영 외,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장미선, 「한국 목회자사모의 역할 분석과 목회행정가 양성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총회한국교회연구원, 「미래교회와 교회행정(사역지침서)」『2020 미래교회와 미래교회』, 2020.

최형성,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대한기독교서회, 2023.